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
ISSUE 171 2021 JULY

지역사회에 더 나은 일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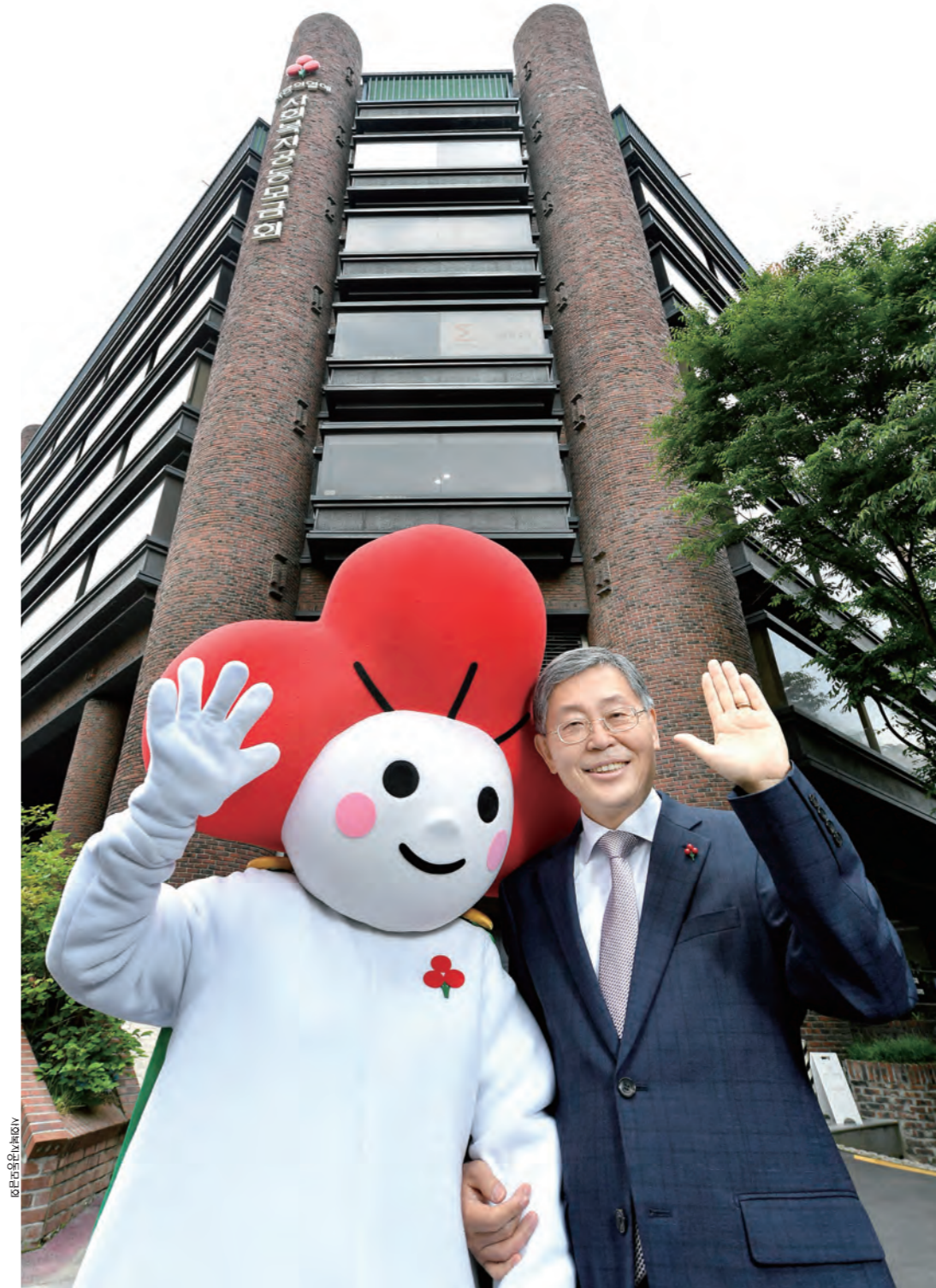
사랑의열매는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사회 구석구석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 지역 주민 교육,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는 협력 기관에 **총 2,378억** 원을 배분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총 2,758억 원을 배분해
우리 사회의 따뜻한 변화를 만드는 데 사용했습니다.



〈사랑의열매〉는 FSC® 인증산림에서 개발 관리한 재료로 제작한 용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21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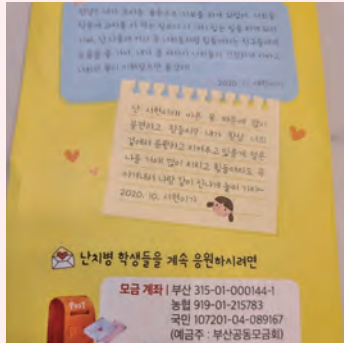
사랑의열매로 돌아온 복지전문가

사랑의열매 설립부터 안착까지,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의 취임 스토리



사랑의열매 웹진 바로가기

“어떤 사랑의열매를 만나셨나요?”



yoon.bbcc

작년에 내가 만든 손수레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게 너무 뿌듯했다. 만들기만 하고 전담식에는 못 갔는데, 이런 기분 때문에 봉사 활동을 하는구나 싶다. 답에 또 해야지ㅎㅎ #중구청 #사랑의열매



09.han.ara

어제 우리 반에서 바자회를 했다. 그리고 번 돈을 모아서 기부를 했다! 주민센터에 가서 동장님, 주민장님, 차장님을 만나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큰돈은 아니지만 너무 뿌듯하다! 오늘 날씨도 좋았는데 정말 행복했던 것 같다! #기부 #사랑의열매 #성내동 #강동구 #동사무소 #성내1동 #성일초등학교 #6학년4반 #뜻깊은일 #뿌듯 #자랑스럽다 #바자회



hiya26

점자동화책 만들기. 아이들도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언제 다 하나 걱정도 했지만 천천히 하다 보니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꼬맹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점자동화책 #점자도서 #점자 #손끝으로세상을읽는점자동화책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 #사랑의열매

#나눔스타그램 캠페인

세상을 따뜻한 온기로 가득하게 만들어요!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는 모습, 일상의 따뜻한 사랑과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모습을 담아주세요.

참여 방법 일상의 따뜻한 모습, 나눔과 봉사 현장, 또는 일상에서 만난 사랑의열매를 SNS에 올려주시고 해시태그를 달아주세요.

필수 해시태그 #나눔스타그램 #사랑의열매

기타 해시태그 #봉사 #기부 #나눔

당첨자 선정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을 올려주신 분을 선정해 커피 기프트콘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나눔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처음에는
그저 작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그 씨앗에 아늑한 흙을 덮어주고
깨끗한 물을 주어 수분을 보충해주고
따스한 햇볕을 내려주고
감미로운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단단한 줄기와 푸른 잎을 뽐내고
벌과 나비가 찾아오는
예쁜 꽃을 피우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열었습니다.

나눔은
누군가 나누고 베풀던
보이지 않는 손이었습니다.



제8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사랑의열매 나눔공모전 글쓰기부문
중학교 최우수상 남원주중학교 1학년 김보은
'나눔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일부 발췌

CONTENTS



04 **나눔을 이끄는 사람**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08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

10 **나눔 컨퍼런스**
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
② 삼성전자·사랑의열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2021 JULY



14 **클라우드펀딩**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고용 지원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인천·경기·경기북부·강원

26 **모두의 나눔**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일상을 만듭니다

30 **내 인생의 한마디**
전북 최초, 부자(父子)·가족 아너 소사이어티
익산 영생당 한약방 임숙현 대표

3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비영리 스타트업 2021 성과 공유회

38 **착한맛집**
질어지는 초록 향기로운 풍경, 경주

42 **FUN한 나눔**

44 **나눔 이슈**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민간 복지 영역의 확대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 장을 열다”

45 **전국 지회 뉴스**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1 2021. 07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7월 / 통권 17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605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의 표지
조흥식 제 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CONTENTS



04 **나눔을 이끄는 사람**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08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

10 **나눔 컨퍼런스**
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
② 삼성전자·사랑의열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2021 JULY



14 **클라우드펀딩**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고용 지원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

26 **모두의 나눔**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일상을 만듭니다

30 **내 인생의 한마디**
전북 최초, 부자(父子)·가족 아너 소사이어티
익산 영생당 한약방 임숙현 대표

3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비영리 스타트업 2021 성과 공유회

38 **착한맛집**
질어지는 초록 향기로운 풍경, 경주

42 **FUN한 나눔**

44 **나눔 이슈**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민간 복지 영역의 확대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 장을 열다”

45 **전국 지회 뉴스**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1 2021. 07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7월 / 통권 17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759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의 표지
조흥식 제 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CONTENTS



04 **나눔을 이끄는 사람**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08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

10 **나눔 컨퍼런스**
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
② 삼성전자·사랑의열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2021 JULY



14 **클라우드펀딩**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고용 지원사업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충북·충남·세종

26 **모두의 나눔**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일상을 만듭니다

30 **내 인생의 한마디**
전북 최초, 부자(父子)·가족 아너 소사이어티
익산 영생당 한약방 임숙현 대표

3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비영리 스타트업 2021 성과 공유회

38 **착한맛집**
질어지는 초록 향기로운 풍경, 경주

42 **FUN한 나눔**

44 **나눔 이슈**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민간 복지 영역의 확대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 장을 열다”

45 **전국 지회 뉴스**

55 **이달의 아너**

56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1 2021. 07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7월 / 통권 17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760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의 표지
조흥식 제 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CONTENTS



- 04 **나눔을 이끄는 사람**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 08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
- 10 **나눔 컨퍼런스**
 - ①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
 - ② 삼성전자·사랑의열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2021 JULY



- 14 **클라우드펀딩**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고용 지원사업
- 15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전북·전남·제주
- 26 **모두의 나눔**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일상을 만듭니다
- 30 **내 인생의 한마디**
전북 최초, 부자(父子)·가족 아너 소사이어티
익산 영상당 한약방 임숙현 대표
- 34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
비영리 스타트업 2021 성과 공유회
- 38 **착한맛집**
질어지는 초록 향기로운 풍경, 경주
- 42 **FUN한 나눔**
- 44 **나눔 이슈**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민간 복지 영역의 확대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 장을 열다"
- 45 **전국 지회 뉴스**
- 55 **이달의 아너**
- 56 **독자 페이지**

사랑의열매

vol. 171 2021. 07



발행인 조흥식 **발행일** 2021년 7월 / 통권 171호 **발행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21길 39 사랑의열매회관 6층
만든이 사랑의열매 마케팅본부 **구독안내** 전화 02-6262-3000 팩스 02-6262-3100 **홈페이지** www.chest.or.kr
등록일 2003년 5월 13일 **등록번호** 서울중, 라00761 **기획, 편집디자인** 한국경제매거진(주) 02-360-4856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윤리강령 및 잡지윤리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지에 게재된 기사나 사진 등 시각 자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전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의 전재·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의 내용은 발행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달의 표지
조흥식 제 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

“무척 영광스러운 자리,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임합니다”

코로나19로 사회복지 분야도 큰 도전과 변화를 맞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다. 하지만 “일이란 무릇 함께 고생하며 헤쳐나가는 과정인데, 적당한 시기에 맡게 된 것 같아 더 영광”이라고 말한다. 국내 사회복지 분야의 대표적 학자이자 전문가인 조흥식 제10대 사랑의열매 신임 회장이다. 글 강은진 사진 김기남

사회복지, 큰 도전 맞은 어려운 시기

지난 6월, 사랑의열매 제10대 회장에 선임돼 본격적으로 3년 임기를 시작한 조흥식 신임 회장을 만나기 위해 집무실을 찾았다. 그러나 조 회장은 각종 보고와 미팅은 물론, 사이사이 그를 찾아온 내·외빈들을 맞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점심도 거른 채 업무를 보고 있다는 말도 들었다. 취임식을 한 후 2주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조흥식 회장을 만나 처음으로 건넨 질문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된 소감이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미 답을 들은 느낌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고, 기계화·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만큼 새로 창출되지 못하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뿐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대전환의 시기이지요. 거기에 코로나19가 전환 속도를 높이는 이때 제가 회장에 맡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게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편하면 봉사가 아니지요.” 조흥식 회장은 사랑의열매 회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고 진지하게 답했다.



23년 만에 회장으로 돌아오다

조흥식 회장은 서울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사회복지학과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3년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을 맡았고,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장, 한국사회정책학회장, 한국사회복지학회장, 서울대 교수협의회회장 등을 역임했다. 명실상부 사회복지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다. 또 사랑의열매와도 인연이 깊다. 사랑의열매 탄생에 기여했을 뿐 아니라, 10년간 배분위원장·기획홍보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사랑의열매가 안착하도록 도왔다. 그리고 1998년 설립 이후 23년 만에 회장으로

돌아온 셈이다. 누구보다 사랑의열매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그는 사랑의열매의 역할을 “우리 사회에 행복을 전해주는 메신저”라고 정의했다.

“우리 단체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인생을 알게 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남을 도우므로 내가 기쁘고, 남의 기쁨을 보며 내가 기쁜 선순환의 고리를 계속 만들어가야 해요.”

빈곤과 질병 낚는 불평등에 관심 많아

조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출산 고령화, 불평등, 신빈곤, 기후변화, 생명 불안, 가족



“
1998년 사랑의열매 설립에 기여하고, 무사히 안착할 수 있도록 10년간 도왔습니다. 그리고 23년 만에 회장으로 돌아오게 되어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사랑의열매에 기부해주는 모든 분에게 보다 진정성 있게 다가가겠습니다.”

해체 현상, 성 불평등 등 우리 사회문제를 언급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가장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해가겠다고 전한 바 있다. “사회복지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무엇보다 지금 우리 사회의 큰 문제는 바로 빈곤과 질병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좀 더 중간으로 회귀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 점에서 사각지대를 돌보려고 합니다.” 회장으로서는 구체적 목표도 궁급했다. 그러나 조흥식 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의 봉사하는 자리’라며 조직의 목표보다는 기부자에게 진정성 있게 다가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답했다. 이어 복지 현장과 세상을 이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랑의열매 만들 터

“제가 배분만큼은 세계적 전문가라 자부해요. 또 지금은 장애 복지 분야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대학 때 학위 논문 주제가 ‘빈곤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길 왜

하느냐, 우리 사회는 복지 현장과 사회 간의 교류가 전혀 없어요. 아예 담쌓고 살다 보니 사람들은 가난에 대해 공포심마저 가지고, 장애인 시설을 혐오하는 넘버 현상 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조 회장은 미국 대통령을 지낸 클린턴이나 오바마 모두 빈민 지역에서 인권 변호사로 활동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계층 간 교류를 통해 경험을 해야만 나눔도 익숙해지고 기부 문화도 보편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역설했다. 사랑의열매 회장으로 그가 가지는 따뜻한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사랑을 전달하는 메신저인 직원들에게도 당부를 잊지 않았다. “전달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신뢰입니다. 이 돈이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전달되느냐의 문제니까요. 신뢰는 진정성을 바탕으로 하고, 진정성은 정직이 핵심 요소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통하며 보다 신뢰받는 사랑의열매를 함께 만들어가봅시다.” 조흥식 회장은 자신부터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가 더 바빠질 조흥식 신임 회장이 만들어갈 미래에 거는 기대가 크다. ♣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며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이로 인한 코로나 블루, 재난 취약 계층 등 새로운 사회문제가 부각되었다.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이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7일간 나눔캠페인을 벌인다. 글 이선희 사진 김기남

1 (앞줄 왼쪽부터) 사랑의열매 양옥경 이사, 사랑의열매 이태수 이사, 송주온 아내, 유충연 아내,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한국서부발전 송재섭 부사장, 사랑의열매 이연배 이사, 사랑의열매 문형구 이사, 한국아동복지협회 신정찬 회장과 사회복지 직능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출범식

재난 취약 계층과 새로운 위기 대응 프로그램 지원

지난 6월 15일, 사랑의열매는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의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새롭게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까지 준비하기 위해 계획했다. 나눔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재난 취약 계층(아동·청소년의 교육과 돌봄, 2030 세대 학업·취업·진로 문제 등)과 새로운 위기 대응 프로그램(비대면 사회 서비스 강화, 코로나 블루 등 정신 건강 증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우리 사회를 지키는 '사회백신'

이번 출범 선언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 김소영 홍보대사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13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관계자들도 참석해 성공적인 캠페인을 기원했다. 출범식에서 1호 기부자도 탄생했다.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지원에도 나선 한국서부발전(주)이 7억 9,000만 원을, 유원희·송주온 부부 아내의 아들 유충연 기부자가 1억 원을 기부해 각각 법인, 개인 기부자 1호로 이름을 올리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나눔캠페인은 7월 31일까지 47일간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된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 많은 이의 나눔이 이어지길 바란다. 🍀

“코로나19로 힘든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자는 사회의 다짐이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담겨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이 이름 그대로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러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하길 기대합니다.”
-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캠페인 출범식에서 탄생한 법인 기부자 1호 한국서부발전(주)과 개인 기부자 1호 유충연 기부자

“여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돌봄·복지·교육 서비스의 공백으로 사회적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회문제에는 새로운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사랑의열매는 그 해결책의 하나로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을 시작합니다.”
-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당신의 따뜻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기간 6월 15일~7월 31일

참여방법

ARS 060-700-1212(건당 3,000원)
문자 #9004(건당 2,000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가능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사회백신, 행복까지 전하는 사랑백신입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을 위해 홍보대사들이 모였다! LG생활건강에서 기부한 생활용품으로 직접 생필품 키트를 만들고, 응원의 메시지도 전달하기 위해서다. 코로나19 대국민 이웃 돕기 캠페인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된 나눔 컨퍼런스 현장이다. 글강은진 사진서벌세



한자리에 모인 홍보대사들



셰프 이연복



배우 김나운



유튜버 씬님

생필품 키트, 홀몸 어르신에 전달

나눔 컨퍼런스 1부 행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 중인 사랑의열매 김상균 사무총장, 배우 김나운, LG생활건강 정경식 부문장, 조흥식 회장, 셰프 이연복, 유튜버 씬님(왼쪽부터)

-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이연복 셰프와 배우 김나운, 그리고 유튜버 씬님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6월 23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 야외 광장에서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나눔 컨퍼런스'가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대국민 이웃 돕기 캠페인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더욱 힘든 홀몸 어르신들에게 사랑의열매 홍보대사·기부자 등과 함께 생활용품 키트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마련한 것. 이 자리에는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 홍보대사 이연복, 김나운, 씬님과 (주)LG생활건강 정경식 부문장,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동우 부회장을 포함한 30여 명이 참석했다. 본격적인 봉사에 앞서 이연복은 "IMF 외환 위기 때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빨리 극복했듯,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도 '백신'과 같은 기부 문화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김나운은 "나눔이라는 사회백신이 행복까지 전하는 사랑백신으로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해 큰 호응을 받았다. 씬님은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 더욱 많은 분과 의미 있는 행사를 하고 싶다"는 바람을 내비치기도 했다.

- 2부 행사는 생필품을 키트에 담아 포장 작업을 하는 본격적인 봉사 활동을 진행했다. 생활용품 키트는 (주)LG생활건강에서 기부한 치약·칫솔·샴푸·세제 등 생필품 26종으로 구성했으며, 홀몸 어르신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은 "본업으로 바쁜 와중에도 나눔을 실천하고자 참석해준 홍보대사들의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며 "사랑의열매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번 행사를 비롯해 다방면으로 재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5일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 계층을 돕기 위해 대국민 이웃 돕기 캠페인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



INTERVIEW

삼성전자·사랑의열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개소

“보호종료 청소년의 희망찬 홀로서기를 위하여”

지난 6월 2일 광주광역시 희망디딤돌 광주센터가 개소식을 진행했다. 성인희 삼성사회공헌업무총괄사장, 삼성전자 CR담당 이인용 사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등 주요 인사 40여 명이 참석해 보호종료 청소년의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광주센터의 출발을 축하했다.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청소년을 위한 생활관과 북 카페, 피트니스센터, 커뮤니티실 및 상담 등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된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보호종료 청소년의 새로운 시작을 지원

매년 2,500여 명 이상의 보호종료 청소년이 홀로서기에 나선다. 하지만 이 중 3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며, 법정대리인이 없어 휴대전화 개통, 병원 입원 등도 여의치 않을 만큼 사회 적응과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는 보호종료 청소년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2014년부터 '희망디딤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국에 자립통합지원센터(삼성 희망디딤돌 센터)를 건립해 그곳에서 만 18~25세 청소년에게 주거 공간과 교육을 제공하며, 자립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41억 원 규모로 1기

사업을 진행했으며, 사업의 사회적 의미와 가시적 성과를 확인하며, 지난해부터 253억 원 규모로 2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는 강원·부산·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문을 연 자립통합지원센터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에게 1인 생활실과 취업·생활·재정 관리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일대일 맞춤 관리를 제공하는 '자립 생활', 아직 보호가 종료되지 않은 중·고등학생이 본인의 적성을 찾고 진로 교육 등 자립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자립 준비' 사업과 최대 5박 6일간 자립을 미리 경험해보는 '자립 체험'을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는 희망디딤돌 사업을 통해 청소년이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나갈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김요셉 센터장



현재 광주아동복지협회 회장직도 맡고 있으신데, 보호종료 청소년의 현주소는 어떤가요?

● 보호종료 청소년이 자립할 때 안정적인 주거를 마련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성년이 아니어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절차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정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자립 이후에는 청년 실업 문제로 바로 경제활동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현실이구요.

아동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분이자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를 이끄는 분이로서 '희망디딤돌'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를 듯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는 지방조례 제정을 통해 '아동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를 제도화했지만, 예산 문제로 사업 추진이 요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사랑의열매의 '희망디딤돌' 사업을 통해 인프라 구축과 시범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지요. 광주시도 3년의 시범 사업 기간 이후에는 보조금 지원을 통한 사업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협약했습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광주센터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인가요? ● 광주센터에 머무는 기간은 최대 2년으로, 그 이후에는 LH 및 광주도시공사와 연계해 장기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역의 중견 기업들과 협약을 추진하고 있어, 아이들의 꿈과 연계된 일자리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향후 진로 탐색, 경제, 사회 기술, 자립 체험 등 자립 역량을 강화할 교육을 마련해 청소년 시기에 자립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충분한 준비가 가능하게끔 지원할 예정입니다.

희망디딤돌 광주센터
조윤하 사무국장



광주센터를 직접 본 보호종료 청소년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 희망디딤돌 광주센터를 둘러본 대상자들의 반응은 모두 긍정적으로 하루빨리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총 30명의 입주 대상자 중 7월 중으로 5명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아직 남은 전세 계약 등으로 당장 입주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 내년 2월쯤 모든 입주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아동복지 현장에 있는 분이로서 '희망디딤돌' 사업에 참여한 소감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 보호종료 후 갑자기 사회로 나가다 보니 좋지 않은 길로 빠지는 경우, 경제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대상자를 많이 봤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느껴왔습니다. 삼성전자·사랑의열매의 '희망디딤돌' 사업을 통해 보호종료 청소년의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광주센터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 보호 대상자 청소년에게 자립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고자 교육과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주 청소년에게는 자립 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

세상을 바꾸는 모두의 펀딩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사랑의열매가 새로운 사회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사랑의열매 홈페이지를 통해 크라우드펀딩을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는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자립을 돕는 도서관 사서보조 양성 교육 펀딩을 진행한다.

클 이션희 사진 사랑의열매

발달장애인 도서관 사서보조 고용 지원 사업

“우리도 열심히 일하고 싶어요”



발달장애인은 일에 대한 의지가 있어도 사회의 편견이라는 높은 장벽에 가로막혀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별로 인한 낮은 취업률은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내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도서관 사서를 돕는 사서보조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서보조는 발달장애인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단순 업무이면서 근무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하지요. 전국의 도서관은 약 1만 3,000개로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답니다. 발달장애인도 아무런 편견 없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주세요. 🍀



**발달장애인이 당당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따뜻한 응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모금 기간 2021년 6월 15일~8월 31일

목표 금액 370만 원

모금 사용 교재 제작비, 실습 도서비, 실습 재료비 등

모금 참여 사랑의열매 홈페이지(www.chest.or.kr) 캠페인 크라우드펀딩



OR코드를 찍으면 사랑의열매
(크라우드펀딩)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경기북부 강원



오세훈 시장, 서울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

서울 사랑의열매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제3대 명예회장에 추대했다.
지난 2007년 제1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14년 만의 일이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명예회장 추대식에서
(왼쪽부터) 애경산업(주)
임재영 대표이사,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서울 사랑의열매
현영 홍보대사,
(사)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김정안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복지 서울 협력 다짐해

•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사랑의열매 제3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지난 6월 16일 서울시청에서 서울 사랑의열매 제3대 명예회장 추대식과 더불어 애경산업(주) 기부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 서

울 사랑의열매 현영 홍보대사, 애경산업(주) 임재영 대표,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 김정안 회장 등이 참석했다. 윤영석 회장과 현영 홍보대사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에게 사랑의열매와 추대패를 전달하며 "서울 사랑의열매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서울시장의 따뜻한 응원에 힘입어 앞으로도 서울시 나눔문화 확

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사랑의열매 초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이후 14년 만에 다시 제3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어 감회가 매우 새롭다"면서,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험사 최초 '나눔명문기업' 가입한 SGI서울보증

'우리 서울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

SGI서울보증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보험사 최초로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하고, '우리 서울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로 캠페인 시작을 알리며 기업의 온정을 전했다. 글강은진 사진 서울 사랑의열매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

• 6월 21일, SGI서울보증이 성금 2억 원을 전달하며 '우리 서울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로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위기 가정과 재난 취약 계층의 복지 공백을 막고자 6월 15일부터 47일간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SGI서울보증이 기탁한 성금은 코로나19 극복 '토닥토닥' 생계비 지원에

사용된다. 전달식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는 "이번 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캠페인이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백신 같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3일에는 6억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서울 사랑의열매에 전달하며 보험사 최초(서울 18호)로 나눔명문기업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번 성금은 서울 사랑의열매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저소득 아동 의료비 지원, 전국 각지 지역아동센터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로 창립 52주년을 맞는 SGI서울보증은 지난 2015년부터 사랑의열매에 기부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



기념 촬영 중인
우리 서울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
SGI서울보증 유광열
대표이사(오른쪽)와
서울 사랑의열매
윤영석 회장(왼쪽)

중소기업 약정 프로그램 '우리구 착한기업' 사업 시작한 인천 사랑의열매

이웃과 함께하는 우리 동네 중소기업은 어디?

인천 사랑의열매의 '우리구 착한기업'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역사회 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중소기업의 약정 기부 프로그램으로, 벌써 5개 구 10개 기업이 동참했다. 지역 복지 상생의 초석이 될 전망이다. 글강은진 사진 인천 사랑의열매



1



2

1 인천종합어시장이 중구 1호 및 인천시 통합 첫 번째 착한기업으로 가입했다.
2 부평구 1호 기업인 (주)에스와이엔지니어링

지역의 든든한 울타리, 착한기업

- 지역 복지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바로 인천 사랑의열매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우리구 착한기업' 사업을 통해서다. 우리구 착한기업은 지역 내 복지 이슈 등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나누는 중소기업 대상 약정 기부 프로그램이다. 매월 30만 원 이상 3년간 정기 기부를 약정한 기업에 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참여 기업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비롯해 사랑의열매 현판 증정 및 참여 기업 명단 게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무엇보다 나눔을 실천하는 인천의 중소기업임을 대표적으로 인증한다는 점에서 가입 기업과 지역민의 상호 신뢰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 착한기업 사업의 출발도 좋다. 지난해 12월,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사장 유기봉)이 중구 1호 및 인천시 10개 군(구) 중 첫 번째 착한기업으로 가입하며 순조로운 시작을 알렸다.



3

3 남동구 1호 기업인 (주)집승코퍼레이션은 매월 100만 원을 약정 기부하며 지역 이웃을 돕는다. 4 연수구 1호 기업으로 가입한 더멀매트릭스(주)
5 (주)이마루우드는 서구 1호로 착한기업에 명단을 올렸다.

1년도 안 돼 벌써 10개 기업 동참

- 인천종합어시장을 시작으로 뒤 이어 두 달여 만에 연수구에 위치한 스킨케어 전문 화장품 기업 더멀매트릭스(주)가 두 번째로 착한기업이자 연수구 1호 착한기업에 가입했다. 이후로도 이마루우드(서구), 에스와이엔지니어링(부평

구), 집승코퍼레이션(남동구) 등이 우리구 착한기업에 가입하면서 현재까지 총 5개 구에서 10개 기업이 우리구 착한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매월 100만 원을 약정 기부하며 최근 착한기업에 가입한 파스타 전문점 (주)집승코퍼레이션 김경민 대표는 "남동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말했다. 인천 사랑의열매 이정윤 사무처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우리구 착한기업이 큰 힘이 되어줄 것"이라면서, "인천의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동참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가입 문의: 인천 사랑의열매 032-456-3320) ❀



4



5

사원증은 사랑을 싣고? 나눔을 싣고!

키오스크에 사원증 태그해 기부금 모으는 삼성전자 DS

삼성전자 DS 임직원이 사원증으로 나눔을 시작했다. 사내 설치한 기부 키오스크에 사원증을 태그하면 급여 공제를 통해 자동 기부되는 형식이다. 후원 기관 추천부터 모금까지 모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그 의미를 더한다. 글강은진 사진경기사랑의열매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대안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에서 삼성전자 DS부문 최실근 차장(오른쪽 세 번째)과 경기 사랑의열매 최은숙 사무처장(왼쪽 두 번째) 및 관계자들이 성금 350만 원을 전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나눔 동참 키오스크

삼성전자 DS 임직원들에게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다? 있다! 바로 '나눔 동참 키오스크'다. 삼성전자 DS는 지난해 5월부터 사업장 내 기부금 키오스크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키오스크 스크린에는 매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사연이 소개된다. 사연을 접한 임직원은 사원증을 태그해 1회당 1,000원씩 급여 공제를 통해 자동 기부하는 형식으로 운영한다. 그뿐만 아니라 후원금 액수와 전달 결과도 함께 소개해 나의 기부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가능하다. 또 도움이 필요한 후원 기관을 추천하고, 키오스크를 통해 모은 금액으로 제안부터 기부까지 모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해 나눔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난 5월 11일, 경기 사랑의열매는 삼성전자 DS로부터 키오스크에 기부된 성금 350여만 원을 기탁받았다. 기탁받은 성금 역시 지난 한 달 동안 청각장애 아동들의 사연을 접한 임직원 1,168명의 자발적 동참으로 조성했으며, 국내 유일의 수어 중심 아동·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소리를 보여주는 사람들'에 전액 지원했다.

자연스러운 사내 나눔문화 정착

지난 6월 3일 삼성전자 DS가 경기 사랑의열매를 통해 두 번째로 성금을 기탁한 곳은 명륜보육원이다. 명륜보육원은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와 미아들의 응급 구호를 위해 설립해 현재까지 사연이 각기 다른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아동복지시설로, 현재 39명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다. 삼성전자 DS 임직원들은 지난 한 달 동안 키오스크를 통해 명륜보육원 입소 아동들의 사연을 접하고 모두 1,686명이 동참해 660여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경기 사랑의열매는 명륜보육원에 기부금 전액을 전달할 예정으로, 보육원 입소 아동의 관리를 위해 지원한다. 성금을 전달한 삼성전자 DS 관계자는 "직장 안에서 임직원이 자연스럽게 나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도입했다"면서, "매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복지 현장에 행복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1 명륜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의 사연을 접한 삼성전자 DS 임직원 1,686명이 모금에 동참했다.
2 사내에 설치한 나눔 키오스크에 사원증을 태그하면 자동으로 기부금이 적립된다.



파주상공회의소는 남아프리카 근로자의 어린 자녀들을 돌보는 파주읍 소재 조이하우스 (대표 이인자)를 방문해 성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지역사회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파주상공회의소

“따뜻한 나눔의 온정,
기업이 함께해요!”

파주상공회의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단체 내에 사회공헌위원회까지 구성해 지역사회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쳐온 것.
기업 나눔 활동의 롤모델로 떠오르는 파주상공회의소 이야기. 글강은진 사진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멈춤 없는 사회 공헌 활동

• 코로나19로 기업들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멈춤 없는 파주상공회의소의 사회 공헌 활동이 지역사회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파주상공회의소는 파주 지역 유일한 종합 경제인 단체로, 조직 내 사회공헌위원회까지 구성해 기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오랫동안 실천해왔다. 지금도 저소득 소외 계층 주거 환경 개선 사업, 긴급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지원 등 체계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전개 중이다. 그뿐만 아니라 연중 활동으로는 장학금 지원 사업, 코로나19 지원 사업 등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어르신동네복지사’, ‘희망등대’ 및 ‘기부계단’ 사업비 지원 등 복지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파주 지역 나눔문화 정착에 파주상공회의소가 큰 역할을 해왔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사회,
꼼꼼하게 챙겨

• 지난 5월 25일과 31일 양일간, 어르신동네복지사, 희망등대, 기부계단 사업 등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올해 파주상공회의소의 가장 대표 사업은 어르신동네복지사다. 활동이 가능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을 동네복지사로 위촉해 지역과 단절된 홀몸 어르신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활동을 지지하는 파주시형 저소득



노인 케어 사업이다. 위촉된 어르신동네복지사는 홀몸 어르신의 말벗이 돼, 안부를 묻고 생필품 꾸러미도 전달한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아니라, 지역사회 내 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파주상공회의소

• 금촌역 1번 출구 계단에 설치된 기부계단도 화제다. 시민들이 계단을 밟을 때마다 기부금이 적립되는 사업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 기부에도 동참할 수 있어 나눔문화 확산에 크게 일조한다. 이 밖에도 다문화 가정을 위한 문화 예술 콘서트를 진행해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아프리카 이주민 노동자 자녀들의 아동 건강 증진과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는 희망등대 사업과 지역사회 장애인 대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 차량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는 기부금을 관리하며 사업을 지원한다. 경기북부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은 “어려운 시기, 취약 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나눔을 통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1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보일러와 유류권 구입 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다. 2 어르신동네복지사 사업 및 기부계단 기부금 전달식에 참석한 파주상공회의소 박한진 사회공헌위원장, 박종한 회장, 최종환 파주시장, 사랑의열매 강주현 본부장(왼쪽부터)



춘천시, 기부 활성화 위해 '춘1000인 나눔의 전당' 조성

“소중한 마음을 기억하며 온정을 이어가요”

춘천시청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한 작은 영웅들의
이름을 시청 내 한 벽면에 기록한 것. 춘천시 기부
활성화의 초석이 될 '춘1000인 나눔의 전당'을
만나보자. 글강은진 사진강원사랑의열매



소중한 이름이 새겨진 나눔의 전당

- 춘천시청에 아주 특별한 공간이 생겼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1억 원이 넘는 큰돈을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한 작은 영웅들의 이름을 한데 모은 '춘1000인 나눔의 전당'이다. 6월 7일,

강원 사랑의열매는 춘천시청 내 1층 로비에서 춘1000인 나눔의 전당 제막식을 개최했다. 춘1000인 나눔의 전당은 춘천시청이 춘1000인 '천원나눔 계좌갯기 범시민운동'과 선한 이웃 기부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부자를 발굴하고, 후원자에

대한 예우와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해 조성했다. 이번 전당에 이름이 오르는 예우 대상자는 모두 20명으로, 강원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의 회원과 누적 기부금이 10년 동안 1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 또는 기업이다.



1 제막식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
2 춘1000인 나눔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기부자들은 빈 공간이 꽉 찰 만큼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은 전당에 이름을 올린 작은 영웅들

춘천시 나눔문화의 초석

- 춘천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천원나눔 계좌갯기 범시민운동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2017년 시작한 천원나눔 계좌갯기 범시민운동은 춘천 시민 한 명이 매월 1,000원씩 기부해 이웃을 돕는 나눔 운동으로 현재 5,800여 명의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 강원 사랑의열매 유계식 회장은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가 큰 기부자를 찾아 이들을 예우하고 소중한 뜻을 기리기 위한 전당을 만들어준 춘천시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나눔이 지역사회 곳곳에 확산될 수 있도록 강원 사랑의열매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날 제막식에 참석한 기부자들은 자신의 이름 옆에 남은 빈 공간까지 꽉 찰 만큼 춘천에 나눔문화가 확산되기를 기원한다고 입을 모았다. ♡



2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11대 부산사랑의열매 최금식 신임 회장 취임

“지역사회에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부산사랑의열매 회장의 이·취임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사랑의열매는 지난 6년간 부산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제9·10대 신정택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제11대 최금식 회장(주)선보공업 회장)이 취임하며 부산사랑의열매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글 이선희 사진 부산사랑의열매



지난 5월 31일에 진행된 제9·10대 신정택 회장의 이임식과 제11대 최금식 회장의 취임식

눈부신 성과로 아름다운 마무리

이번 이·취임식을 위해 많은 인사가 자리를 빛내주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부산광역시 김석준 교육감, 부산상공회의소의 장인화 회장 등 관계자 50여명과 사랑의열매를 대표해 조흥식 회장, 김상균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제9·10대 신정택 회장의 이임사와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제9·10대 신정택 회장은 2015년 6월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부산 사랑의열매를 이끌며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회장직을 맡은 첫해 179억 원 모금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역대 최고 모금액인 327억 원을 달성하며 의미 있는 기록을 남겼다. 또 고액 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156명 가입, 법인 기부 참여 또한 88억 원에서 211억 원으로 3배에 가까운 성장을 했다. 전국 최초로 최다 인원인 11명 아너 소사이어티 공동 가입 2회 진행 및 36명 나눔리더 단체 가입 등 개인 기부자부터 기업 기부자까지 많은 이가 나눔에 참여할 수 있



1


1 (왼쪽부터) 제9·10대 신정택 회장, 부산 사랑의열매 회기를 전달받은 제11대 최금식 회장, 사랑의열매 조흥식 회장
2 평소 꾸준한 나눔을 이어온 부산 사랑의열매 최금식 회장



2

도록 노력해왔다. 신정택 회장은 부산 사랑의열매 회장직을 마무리하며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부산 시민을 위해 성금 1억 원을 기탁하며 “앞으로 나눔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아름답고 따뜻한 부산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나눔으로 더욱 따뜻한 부산을 만들기 위해

같은 날 제11대 최금식 회장의 취임식이 진행됐다. 최금식 신임 회장은 부산 사랑의열매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일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평소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아 교육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3년 직접 출범시킨 비영리 공익법인 ‘선보단체’를 통해 네팔과 우간다 등에 학교를 지었다. 또 고향 김해시의 후배들을 후원하기 위해 2016년 ‘선재장학재단’을 출범시켜 장학 사업도 펼치고 있다. 취임사를 통해 이임식을 마친 신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후 “부산 사랑의열매를 앞으로도 더욱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차근차근 배우고, 노력해 지역사회의 막중한 사명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아낌없는 사회 공헌으로 명망이 높은 최금식 회장이 이끌어갈 부산 사랑의열매의 행보에 벌써부터 많은 이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DGB금융그룹 창립 10주년 기념 ESG 경영 활동

“부릉부릉~ 친환경 차량에 따뜻한 사랑을 싣고 달립니다”

DGB금융그룹이 ‘따뜻한 금융으로 모두가 꿈꾸게 하는 세상을 만들다’라는 경영 이념과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특별한 나눔을 펼쳤다. 대구 사랑의열매와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친환경 푸드뱅크 차량을 지원한 것. 취약 계층의 결식을 해소하고 지구환경까지 고려한 친환경 차량 지원 현장을 소개한다. 글 이선희 사진 대구 사랑의열매



DGB금융그룹은 앞으로도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다. 푸드뱅크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까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

DGB금융그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룹의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금융권 최초의 종합 사회 공헌 재단인 DGB사회공헌재단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그룹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구 사랑의열매에 약 60억 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 북구 산격동에 위치한 ‘북구희망나눔푸드마켓’에 DGB친환경 물품 코너를 구성해 취약 계층의 결식 예방과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기여했다. 차량 전달식에서 DGB금융그룹 김태오 회장은 “창립 10주년을 맞은 DGB금융그룹이 9개 계열사를 거느린 명실상부한 종합 금융 그룹으로 성장하기까지 지역민들의 따뜻한 사랑과 애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내외 다양한 이슈에 대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년 동안 지역사회의 복지 발전에 아낌없는 나눔을 실천해온 DGB금융그룹, 앞으로 지역에 어떤 나눔을 전할지 그들의 10년 후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

대기오염까지 줄이는 든든한 나눔

푸드뱅크는 기업·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 기부받아 저소득 소외 계층을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다. 특히 대구는 나눔 정신을 더욱 강화해 올해부터 ‘키다리 나눔점빵’으로 확대 운영하며, 코로나19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문제는 대구 지역에서 운영 중인 20여 개 푸드뱅크 중 상당수가 노후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차량 운행이 제한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게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차량 교체가 시급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푸드뱅크 사업에 대한 편견, 낮은 관심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DGB금융그룹은 지난 5월 17일, DGB금융지주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지역에서 운영 중인 푸드뱅크 사업 시설 다섯 곳에 친환경 차량을 전달하며 ESG(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 구조Governance) 경영을 실천했다. 특히 푸드뱅크 차량을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차의 93분의 1에 불과한 친환경 LPG 차량으로 교체 결정함으로써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대기오염을 줄이고, 국민 건강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도 앞장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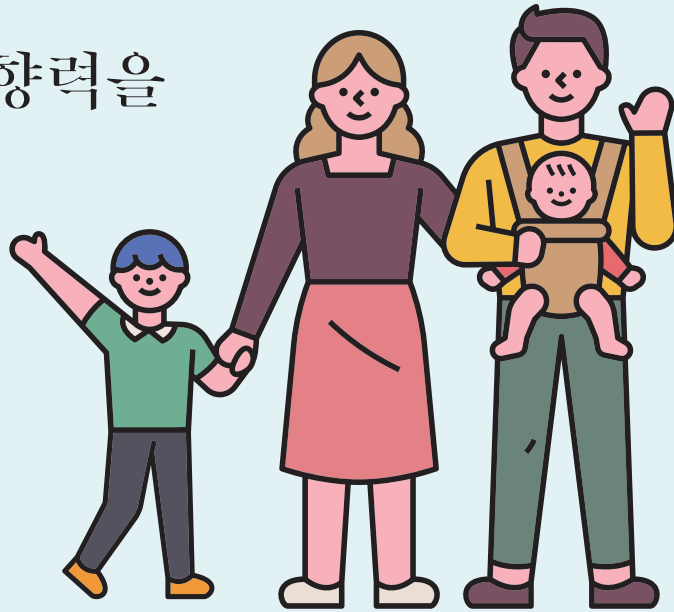
DGB금융그룹의 친환경 푸드뱅크 차량 전달식

김태훈·정은정 부부와 자녀 김성찬·사랑·온유, 성금 전달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한 ‘나눔’ 가족

울산 사랑의열매에 김태훈 씨 가족이 양손 가득 사랑을 들고 방문했다. 부부와 세 자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작지만 큰 나눔을 전하고자 한 것. 이들의 나눔리더 가입식은 보는 이로 하여금 흐뭇한 미소를 자아낼 만큼 훈훈함으로 가득했다는 후문이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 사랑의열매



성금·성품 전달식에 함께한 김태훈 씨 가족들

지난 5월 17일 김태훈·정은정 부부가 세 자녀와 함께 울산 사랑의열매를 찾았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고자 성금 100만 원과 백미 20kg을 울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이웃 돕기 성금과 성품은 김태훈·정은정 부부와 자녀인 김성찬·사랑·온유 이름으로 기부했다. 이번 성금 전달로 김태훈 씨는 가족을 대표해 울산 나눔리더 34호에 가입했다. 이날 김태훈 씨와 그의 가족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중 사랑의열매를 알게 되었고, 가족회의를 통해 기부를 결심했다”며 “작은 나눔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김태훈 씨 가족이 전달한 성품은 울산시각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고, 성금은 지역 내 취약 계층이 현재 닦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지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

시각장애인 점자 벽보 제작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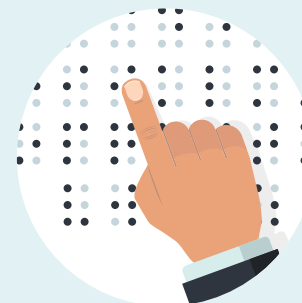
“손끝으로 만지며 쉽고 재미있게 점자를 익혀요”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칠 때 다양한 한글 교구를 이용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게 한다.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배우는 것도 이와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 이에 점자 문맹률을 낮추는데 실질적 효과를 주고자 점자 벽보 제작 사업을 진행했다.

글 이선희 사진 울산 사랑의열매



시각장애 아동의 교육을 위해 전달한 점자 교구재



사단법인 체인지메이커는 시각장애인에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울산 사랑의열매의 지원을 받아 점자 벽보와 점자 교구재를 제작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손가락만으로 점자를 해독하는 게 어렵다 보니 점자 학습을 중도 포기하는 시각장애인이 많다.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해율이 5%가 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러한 시각장애인의 학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점자를 접하는 시각장애인이 쉽고 재미있게 점자를 배울 수 있는 점자 벽보와 점자 교구재를 제작해 특수 교육기관에 전달했다. 부산맹학교에서는 점자 벽보를 활용해 교육을 진행한 이후 점자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이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 점자 벽보 제작 사업은 향후 시각장애인의 점자 문맹률을 낮추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경상북도교육청과 함께하는 '따뜻한 사랑모아 희망나눔캠페인'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이들에게 보내는 따뜻한 응원”

지난 5월 '따뜻한 사랑모아 희망나눔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힘든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경북 내 많은 사랑이 모였다.

글 이선희 사진 경북사랑의열매



경상북도교육청에서 진행한 '따뜻한 사랑모아 희망나눔캠페인' 기부 퍼포먼스 행사



1



2

꿈과 희망을 담은 공동 캠페인 전개

경북 사랑의열매와 경상북도교육청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도내 초·중·고등학생, 교직원, 도민 등이 함께 '따뜻한 사랑모아 희망나눔캠페인' (이하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모금 운동을 전개했다. 경상북도교육청과 경북 사랑의열매는 20년 넘게 난치병 아이를 돕

는 '난치병성금모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이 캠페인을 일시 종료하고, 대신 희망나눔캠페인을 전개한 것. 코로나19가 1년 넘게 지속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교육 격차가 커졌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은 이종고를 겪으며 더욱 힘든 시기를 보냈다. 이에 학생들에게 장학금(생계비)을 지원해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 것이다.

1 (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캠페인 성금을 전달한 (재)애린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2 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홍순임)에서도 성금을 기탁했다.

까지, 각 학교는 5월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했다. 학부모, 도민 등은 코로나19로 대면 모금이 힘든 것을 고려해 ARS 기부와 문자 기부 등을 통한 언택트 모금 방식으로 참여했다. 희망나눔캠페인의 첫 기부자로 참석한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은 “우리 모두가 작은 나눔문화를 실천해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경북도민 모두가 희망나눔캠페인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5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캠페인은 막을 내렸다. 많은 이의 사랑으로 모인 성금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부디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에게 도민들의 큰 사랑까지 잘 전달되길,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힘이 되길 바란다. 🍀



작은 나눔문화 실천이 큰 사랑으로 모아

이번 캠페인에는 도내 교직원(도교육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학생, 경북도민이 참여했다. 학생과 교직원은 각 학교(기관)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모금을 한 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직속 기관·교육지원청은 4월 26일부터 5월 9일



지난해 열린 쿨(Cool)한 할배할매 안녕한 여름나기 지원 행사 모습

취약 계층 노인 2,000세대 지원 예정

“할배 할매, 올여름도 쿨(Cool)하게 보내이소”

경남 사랑의열매가 지난 6월 한 달 동안 ‘2021년 시원한 여름 나기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 기간 동안 도민이 보내온 귀중한 성금은 모두 도내 취약 계층 노인 세대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글이선희 사진경남 사랑의열매

도민의 성금으로 마련한 여름 나기 물품

여름은 모두에게 힘들지만, 특히 어르신에게는 가혹하다. 보건복지부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폭염 사망자 11명 중 6명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조사됐다. 상대적으로 집에 냉방 기기가 부족한 취약 계층 어르신의 경우 폭폭 찌는 폭염을 온몸으로 견뎌야 하는 터라 온열 질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 경남 사랑의열매는 경남 지역 취약 계층 노인 세대의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해 매년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캠페인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캠페인 기간에 모인 성금은 도내 취약 계층 노인 2,000세대에 10만 원 상당의 여름 나기 물품을 지원하는 데 모두 사용할 예정이다.



1

1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해 저소득 노인 2,300세대를 지원했다.
2 경남 내 기업 및 개인 기부로 여름 나기 물품을 마련했다.(2020년)
3 2019년 키트 제작 행사에 참여한 봉사자들



2



3

함께 만드는 어르신의 건강한 여름

7월부터는 앞서 캠페인 성금으로 구매한 여름 나기 물품을 키트 6종(넥밴드 마사지 선풍기, 여름 이불, 1인용 대자리, KF마스크, 손수건, 응원 엽서)으로 구성해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쿨(Cool)한 할배할매 안녕한 여름 나기 지원’을 진행한다. 지난 2년 동안 취약 계층 노인 4,800세대, 4억 원의 물품을 지원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게 도왔다. 올해도 경상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하성규) 및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에서 대상자를 추천받아 지자체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는 작업 후 노인 2,000세대를 선정한다. 이후 18개 시군에서 안녕한 경남 ‘So Cool Day!’ 주간 동안 경남 관내 거주 기업, 기관, 단체, 도민(가족, 연인, 청소년, 대학생) 등 다양한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키트 제작 활동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봉사활동 키트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완성한 여름 나기 6종 구성의 키트는 어르신들이 무사히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도민의 정성과 사랑으로 마련한 ‘시원함’으로 어르신들이 올여름도 건강하게 보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대전
충북
충남
세종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한 유성구행복누리재단

틈새 계층 지원으로 복지 공동체 완성을 꿈꾸죠!

수많은 복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여 어렵게 생활하는 틈새 계층이 있다. 이들을 위한 지원은 계층 간 삶의 질 격차 해소는 물론, 모두가 **윤택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 공동체의 완성으로 이어진다.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 만들고자 하는 공동체다. 글강은진 사진대전 사랑의열매

틈새 계층 위한 꼼꼼한 지원

행복한 복지 공동체를 꿈꾸며 오늘도 소외된 지역 내 이웃을 열심히 찾는 곳이 있다. 바로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이다. 수많은 복지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틈새 계층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은 이 같은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기금을 출연,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은 유성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포함해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까지 지역 주민을 돕는다. 재단의 사업은 크게 지원 사업, 기획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세 가지다. 이 중 가장 중심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 계층 및 위기 가정을 지원하는 행복나눔 지원 사업이다.

위기 가정 살리는 긴급 지원비

특히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등 다양한 위기 상황을 겪는 틈새 계층에 결연 후원과 생계비·의료비·긴급 지원비를 지원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총 750명을 지원했다. 또 후원 기관과 함께 기부하는 지정 기탁 사



3

업을 통해 올해만 저소득층 건강 지원으로 1,624명, 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400명, 저소득층 주거 환경 사업으로 700명, 후원 물품 지원 사업으로 1만 4,000명을 지원했다. 다양한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계절별·대상별 맞춤형 지원 사업인 기획 사업도 코로나19 상황에서 빛을 발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과 유성구민에게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 경제적 위기 가정 지원만 550명, 지역 상권 활성화에 1,466명, 생활 방역에 무려 8,714명을 포괄적으로 지원했다.

1 네트워크 구축 사업인 사랑의 김장 나누기를 통해 유성구 저소득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 1,800여 가구에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2 다양한 공모 사업으로 유성구 지역 주민들에게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학습에 도움을 주며 아이들의 과학 활동을 위해 과학 키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 수업 모습

자생 능력 향상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문제 예방과 해결, 자생 능력을 향상하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대표 사업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소원을 말해봐'다.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코로나19로 완제품 김장 김치를 각 동의 저소득 가정과 유성구 복지시설에 드라이브스루 형태로 지원했다. 소원을 말해봐는 저소득 가정 자녀의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사업으로, 사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하고 12월에 소원 선물을 준비해 후원자가 산타가 되어 집집마다 방문해 선물을 전달한다. 이처럼 수많은 사업을 통해 오늘도 유성구행복누리재단은 복지 공동체를 완성하기 위해 달리고 있다. ♡



1



2



1

어르신을 다시 세상 밖으로

- 갑작스러운 배우자 사별과 자녀 사망으로 홀로 살아가게 된 A 어르신은 고독감과 우울감에 힘든 일상을 보내다 기관 상담실을 찾았다. A 어르신은 상담실에서 뜻밖에 자신과 비슷한 동년배 상담사를 만나게 되어 한결 편안하게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동년배 상담사는 A 어르신의 욕구와 취미 등을 파악해 기관 독서 동아리를 소개했다. 그뿐 아니라 함께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며 A 어르신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왔다. 이 사례에서 A 어르신을 도운 동년배 상담사가 바로 '동년

배 지킴이다. 동년배 지킴이란 시니어 생명 지킴이로 위촉된 상담 자원봉사자로, 어르신 자살 예방 전문 인력이다. 정서적 어려움에 노출된 어르신을 지역 안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동년배 지킴이 꾸준히 양성·지원해

- 어르신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자신의 문제를 주변에 잘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노인 자살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 내 동료 노인, 2세대, 3세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자살 위험군 발생을 초래한다.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배 지킴이다. 동년배 지킴이란 시니어 생명 지킴이로 위촉된 상담 자원봉사자로, 어르신 자살 예방 전문 인력이다. 정서적 어려움에 노출된 어르신을 지역 안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동년배 지킴이 꾸준히 양성·지원해

어르신은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자신의 문제를 주변에 잘 알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이로 인해 노인 자살은 개인뿐 아니라 지역 내 동료 노인, 2세대, 3세대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자살 위험군 발생을 초래한다.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이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신 건강 사업을 지원한다. 이 사업을 통해 2015년부터 도내 동년배 상담사 양성을 시작으로 지역 어르신의 복지 욕구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동년배 지킴이로 명칭을 변경해 꾸준히 양성하고 있다. 정신 건강 지원 사업은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노인을 발굴해 상담을 진행하고, 이후 상태에 따라 전문 상담사 연결, 음악과 미술 등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이나 전문 기관 등과 연계해준다. 그뿐 아니라 각 복지관 사례 관리 사업과 2020년 시작한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연계해 단순 정서 및 안부 지원 서비스를 넘어 어르신 욕구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1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위해 동년배 지킴이 양성 사업을 꾸준히 지원한다. 2 어르신들은 동년배 상담사에게 보다 쉽게 마음을 연다. 사진은 상담 모습

심리적 위기에 처한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해 나선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동년배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동년배 지킴이의 활약

심리적·정신적 위기에 처한 어르신들은 위험한 상황이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자신의 문제를 주변에 잘 알리지 않는 특성마저 보여 심각성을 더한다. 이는 광범위한 노인 자살 위험군의 발생을 초래하기 때문에 예방을 위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글 강은진 사진충북사랑의열매



2

“역시 또래인 동년배 지킴이가 최고야!”

상담자의 톡톡, 톡톡 Talk

CASE 1 “나이기도 많은데 지병이 있어 삶에 의욕이 없었지요. 심리 검사를 하니 중증도의 우울감이더라고요. 그 후에 동년배 상담사와 같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많이 좋아졌어요. 내게 우울증이 있다는 사실도 인정하고, 이제는 약도 먹으면서 건강해지려 노력해요.”

CASE 2 “동년배 상담사랑 상담하던 중 제가 핸드폰 명의 도용 피해를 당한 걸 알았어요. 동년배 상담사가 담당 사회복지사에게 알려 해결해 주었죠. 나를 지켜주는 것 같아 너무 고마웠어요!”

CASE 3 “동년배 상담사나 구성원들과 함께하면 나를 지지해준다는 느낌을 받아서 너무 좋아요!”

복지 사각지대 지원 위해 시군 연합 모금 협약 체결에 나선 충남 사랑의열매

우리 동네 복지, 풀뿌리 모금으로 단단하게 이어가요!



1

지역의 복지 문제는 지역 주민이!

충남 사랑의열매가 도내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복지 증진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시군별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주변 이웃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단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계룡시를 시작으로 부여군, 공주시 등과 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연합 모금의 시작은 계룡시였다. 지난 4월 27일 계룡시청에서 계룡시와 계룡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비롯해 두마면·엄사면·신도안면·금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이번 협약은 기존 엄사면에서 계룡시 전체로 연합 모금이 확대되면서 계룡시 관내 복지 문제 해소의 마중물로 기대한다. 계룡시는 2021년 5월부터 1년간 모금 금액 6,000만 원을 목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바로 같은 지역 이웃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마리가 지역 단위 조직의 활성화에 있는 이유다. 이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계룡시와 부여군을 시작으로 충남 사랑의열매가 시군 연합 모금 협약 체결을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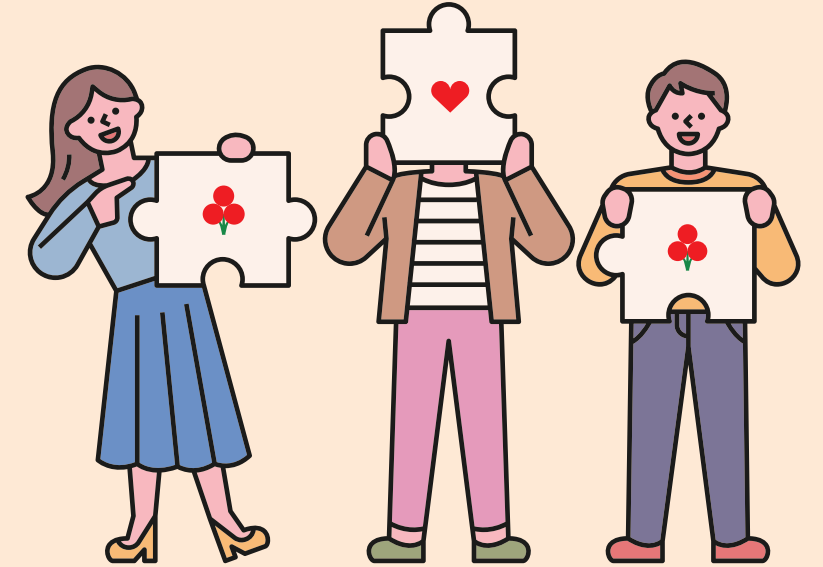
글강은진 사진충남 사랑의열매

1 충남 사랑의열매는 계룡시와 첫 번째로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계룡시 연합 모금 협약 체결식 기념 촬영 모습 2 부여군청에서 두 번째 연합 모금 협약 체결식이 있었다.

설정하고, 관내 저소득 계층 생계비 등 긴급 지원을 비롯해 각 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고유한 특화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계룡시 시작, 부여군·공주시 뒤이어

지난 6월 2일, 부여군청에서도 연합 모금 업무 협약이 체결됐다. 특히 부여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1인 1계좌 갖기 운동을 전개해 주민 스스로가 관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달식에서 박정현 부여군수는 “복지 문제를 군과 협의체, 사랑의열매가 주도적으로 협력해 해결할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앞서 협약식을 체결한 류재승 계룡시 부시장도 “연합 모금이 지역사회 문제를 지역 주민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충남 사랑의열매 정희영 사무처장은 “복지 사각지대는 주변 이웃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단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해 해소할 수 있다”면서, “지역을 지키는 풀뿌리 모금의 정착과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 사랑의열매는 계룡시를 시작으로 부여군에 이어 공주시 등 도내 연합 모금 체결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



2

세종 사랑의열매 1호 착한일터,
글로벌 기업 (주)보쉬전장의 나눔 스토리

“한국의 나눔문화, 보쉬전장의 기업 문화로 활짝 피었습니다!”

착한일터 1호 가입을 시작으로 올해 ‘더 베스트 착한일터’ 인증패를 받기까지 7여 년 동안 임직원 모두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제는 국내의 임직원 모두가 동참할 정도로 따뜻한 기업 문화가 형성되었다.
BOSCH 한국 법인 중 하나인 (주)보쉬전장의 나눔 스토리다. 글 강은진 사진 세종 사랑의열매



보쉬전장은 세종 사랑의열매가 정식 출범하기 전 착한일터 1호로 가입했다. 사진은 올해 3월 진행한 더 베스트 착한일터 인증패 전달식 모습



“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한 직원들의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 나눔문화가
다른 외국계
기업에 뿌리내려
이제는 기업 문화로
꽃피우고 있다.
이렇게 보쉬전장은
지역사회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18년 소망의집
시설공사 봉사활동
현장 모습.

세종 사랑의열매 정식 출범보다 빠른 가입?

• 2013년 3월 세종지회 설립준비단
이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서 사무
실을 개소한 바로 그해 9월이었다. 독일
계 글로벌 기업 BOSCH의 한국 법인 중
하나인 (주)보쉬전장 직원들이 세종지회
사무실에 찾아와 착한일터에 가입했다.
2014년 6월에 정식 출범한 세종 사랑의
열매보다 무려 10개월이나 먼저 가입하
며 첫 번째 착한일터에 이름을 올렸다.
이후 보쉬전장은 착한일터 나눔캠페인
을 통해 조성한 매월 100여만 원의 임직
원 성금으로 세종시 저소득층 10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해왔다. 무엇보다 올해 3

월에는 ‘더 베스트 착한일터’ 인증패를
받기도 했다. 착한일터 1호에 가입한 후
7여 년 동안 그 어느 곳보다 모범적인 활
동을 보여준 결과이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세종 사랑의열매가 문을 열기도
전부터 착한일터에 가입하겠다고 먼저
찾아왔지만, 보쉬전장 세종 공장에는 따
로 사회공헌팀이 없다는 점이다.

직원의 자발적 나눔, 이제는 기업 문화로

• 보쉬전장의 나눔문화는 직원들
이 자발적으로 모여 ‘사랑, 행복 더하기’
라는 봉사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했다.
1995년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으로 공



1



2

1 직원들의 순수한 정신을 본받아 법인 이름의 매칭 그랜트 기부로 매년 1,000만 원 기부와 함께 김장 나눔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2 김장행사는 외국인 사장들과 가족들까지 참여하는 기부문화로 자리잡았다.

3 임직원의 자발적 전개로 시작한 애경사 나눔캠페인을 통해 올해 벌써 3명의 나눔리더와 8가구의 착한가정이 탄생했다. 사진은 세 번째로 나눔리더에 가입한 신윤성 씨(왼쪽)

장을 이전할 당시, 공장 주변에 홀로 사는 어르신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해 봉사 활동을 펼칠 목적으로 설립한 것. 이것이 보쉬전장 세종 공장의 사회 공헌 활동의 시초가 됐다. 그러나 '사랑, 행복 더하기' 봉사 단체의 출발이 처음부터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독일계 기업인 보쉬전장의 외국인 임원들은 복지 선진국인 독일처럼 한국도 취약 계층 돌봄을 국가가 전담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봉사 단체의 활동을 순수하게 바라보지 않은 것. 그러나 한국의 정(情)과 나눔문화를 이해하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다. 그뿐 아니라 사측 역시 직원들의 자발적 나눔의 정신을 본받고자 법

인 이름으로 매년 1,000여만 원을 기부, 김장 나눔 봉사까지 전개하고 있다. 김장 행사에는 크로이츠부르크 요하임 사장을 비롯해 역대 외국인 사장들과 가족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기업 문화로 자리 잡았다. 2013년 착한일터를 시작으로 매칭 그랜트 기부에 이르기까지 보쉬



3



전장이 세종 사랑의열매에 기부한 누적액은 1억 3,000여 만 원에 달한다.

계속 진화하는 보쉬전장의 나눔

- 보쉬전장은 최근 또 다른 나눔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들이 결혼이나 장례 등 집안의 대소사를 치른 후, 참석해준 동료들에게 답례의 의미로 떡과 음료수, 간식 등을 대접하는 문화가 있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방역 문제로 위험해지자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답례 음식 관행을 기부로 전환해 참여하자고 제안한 것. 일명 보쉬전장의 '애경사 나눔캠페인'이다. 보쉬전장의 전통처럼 자체적으로 시작한 이번 캠페인 또한 직원들의 반응이 뜨겁다. 한 명 한 명 기부를 제안하며 시작하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벌써 3명의 나눔리더 회원과 8가구의 착한가정이 탄생했을 정도다. 직원들의 순수한 봉사 활동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던 외국계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뿌리내린 나눔의 씨앗이 회사 발전과 더불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으며 활짝 꽃피웠다. 새로운 나눔의 본보기를 만들어준 (주)보쉬전장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본다. ♡

PLUS INTERVIEW

“나눔의 직장 문화, 회사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보쉬전장 첫 번째 사내 봉사단 ‘사랑, 행복 더하기’ 박덕수 회장과 이익환 총무

‘사랑, 행복 더하기’ 봉사단 박덕수 회장(우측 사진)과 이익환 총무는 직원들에게 봉사와 기부를 제안하며 지역사회 상생은 물론, 노사 화합의 건강한 기업 문화까지 만들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이익환 총무는 “많은 직원의 도움으로 모범적인 사회 공헌 사업을 전개하는 보쉬전장 세종 공장이 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박덕수 회장은 봉사단은 물론 세종 공장 사회 공헌 사업을 이끌어왔다. 전 직원의 75%가 기부에 참여하는 착한일터를 활성화하고, 장애인 시설 보수공사, 인근 학교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 홀몸 어르신 돌봄 및 노후 주택 개·보수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온 것. 이 같은 선행은 2014년 행복나눔인상에서 회사 이름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광으로 이어졌다. 또 2021년 대한민국 나눔유공자에 추천되기도 하는 등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고 있다. 박 회장은 “공장 이전으로 타 지역 공장 직원들이 유입돼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단합하기 위해 봉사단을 설립했다”고 설명하며, “나누고 베푸는 직장 문화가 공장이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전국의 희망 소식을 전합니다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청소년 재능 지원 사업 'Dream Come True'

“내일의 예체능 스타를 발굴하고 지원합니다”

돈이 없으면 꿈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됐다. 특히 예체능 분야는 더욱 그렇다. 부모의 경제력이 입시 결과를 좌우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꿈을 꾸기도 전에 포기하는 학생이 많다. 글강보라 사진광주YWCA



‘예체능은 여유 있는 집에서 하는 것’이라는 인식은 여전하다. 실제로 학비와 레슨, 대회 출전 등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뒷받침 없이 전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예체능 분야에 재능이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소년을 돕기 위해 청소년 재능 지원 사업 ‘Dream Come True’를 추진하고 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다수 장학제도와 달리 예체능계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2021년 Dream Come True 졸업식 모습. 삼성전자는 학생들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선물로 태블릿 PC를 지원했다.

Dream Come True로 너의 꿈을 응원해

• 삼성전자 광주사업장과 광주 YWCA가 함께 진행하는 Dream Come True 사업은 광주 지역 고교 1학년생 중 예체능 전공자를 선정해 후원한다. 단기 성 지원이 아닌 3년간의 장기 지원으로, 매년 진행되는 심사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하면 졸업 때까지 계속 후원한다. 선정된 학생에게는 재능 계발을 위한 교육비, 전공 필수품(악기, 재료, 장비, 의상 등) 구매비, 대회 참가비 등 넓은 범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체계적·지속적 후원 덕에 학생은 실기 연습에 매진할 수 있고, 다양한 전공 대회에 출전해 수상 경력을 쌓을 수도 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덕에 예체능 분야 대학 진학과 사회 진출(취업)에도 유리해진다.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고 고백한 J 양은 Dream Come True 장학생으로 선정되며 졸업 때까지 애니메이션 전문 학원에 다닐 수 있었고, S 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에 합격해 진학의 꿈을 이루었다. Dream



그림 연습을 하는 졸업생의 모습

Come True는 지금까지 210명의 학생을 후원(누적 기준)하며, 광주 지역 저소득 고등학생들의 가장 든든한 문화·체육 후원자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예체능 꿈나무를 위한
진학 성공 로드맵**

- 청소년 재능 지원 사업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재능 지원 담당자는 학생의 개인 레슨, 학원, 학교 등 소속 기관에도 직접 방문한다. 전문가 선생님에게 전공 관련 질문을 구하며 적재적소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별 연락과 만남을 통해 학생의 학업과 진로 상담도 진행한다. 이처럼 따뜻한 응원으로 심리·정서적 면까지도 보살피고 있다. 또한 1년 동안 SNS(밴드, 카카오톡)를 통해 대상 학생들의 연습과 대회 활동 등을 기록하고



1



2

공유한다. 이런 활동은 예비 전공자의 재능 계발과 의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자신의 활동과 다른 이의 성장을 보며 긍정적 자극을 받는 것이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과 면담이 어려운 상황이라 온라인 소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온라인 '톡톡(Talk) 소통의 장!'으로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초대해 사업 관련 공지 사항을 안내하고, 체계적·지속적 지원에 대한 소통 환경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에 전달 방식을 달리하더라도 지원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세밀한 지원 덕에 진학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가능해진다. Dream Come True를 만나면 꿈이 현실이 된다. 도전하는 꿈나무에게는 길이 언제나 열려 있다. 🍀

- 1 졸업생 송OO이 음악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다.
- 2 배구 시합에서 서브를 하는 졸업생 선OO의 모습
- 3 분기별 모임에서는 대상 학생들의 학업과 전공에 대한 상담도 이루어진다.
- 4 청소년 재능 지원 4차에 선정된 보컬&베이스 전공 학생들의 밴드 무대



4

예체능 스타, 빛나는 재능으로 내일을 꿈꾸다



3

사례 ① 분식집 딸이 성악가를 꿈꿔요!

“저는 어릴 때 성가대 찬양 봉사를 하면서 성악가를 꿈꾸게 되었어요. 어렵게 이뤄나가던 꿈이었는데, 코로나19로 부모님이 운영하는 분식집이 어려워지면서 성악 레슨을 받기가 힘들어졌죠. 그때 Dream Come True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행운이었어요. 다시 노래할 수 있게 되어 아주 행복합니다.” - 2020년 전국 예술대회 고등부 1등을 수상한 김OO

사례 ② 춤을 추는 것이 행복한 무용 천재

“중학교 2학년 때 우연히 듣게 된 현대무용 수업에 매료되었죠. 그때부터 현대 무용수를 꿈꿨는데, 실제로는 이룰 수 없는 꿈이었어요. 레슨비와 작품비를 감당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거든요. 그러다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는데, 가장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얼마든지 마음껏 춤춰도 된다는 거예요!” - 2021년 전국 무용대회에서 금상과 최고상을 휩쓴 최OO

사례 ③ 평생의 한에서 평생의 힘으로

“뒤틀림을 못 해서 자식이 꿈을 접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평생의 한이 될 일이었는데, Dream Come True 덕분에 제 딸이 가야금을 전공하고, 예고도 무사히 다닐 수 있었어요. 평생의 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예체능 전공자 부모의 심정을 대변한 조OO의 어머니

전북 14년 만에 착한가게 3000호 탄생

“우리 동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전라북도에는 유독 개인 기부 참여가 활성화된 지역이다. 그중에서도 매월 매출액의 일정액을 나누며 나눔문화 확산을 이끌어가는 착한가게의 가입이 두드러진다. 지난 6월에는 착한가게 3000호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으며, 또 한 번 ‘나눔의 고장’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글 이선희 사진 전북 사랑의열매

“이웃을 돕기 위해 작은 용기를 냈을 뿐인데, 부안읍 첫 번째 가입이자 전북 2000호 착한가게라니 감사하고 부끄럽습니다.”
- 착한가게 2000호 부안석재 김영택 대표

6개소 단체 가입, 3000호 돌파

전북에서는 지난 2008년에 첫 착한가게 가입이 이루어졌다. 이후 9년 만인 2017년에 전주 푸른안과를 비롯한 도내 병원 12개소가 단체로 가입하면서 1000호를 달성했다. 점점 많은 사람이 기부에 동참하며 2019년 부안석재가 2000호로 가입하는 등 단숨에 2000호까지 넘어섰다. 지난 6월 8일, 전북 착한가게는 3000호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인구 1,000여 명에 불과한 작은 지역인 진안군 정천면에서 착한가게 단체 가입이 이루어지면서 영광의 기록이 새겨진 것이다. 이번에 참여한 곳은 운마농장, 시골촌가든, 소정홍삼, 월평덕, 운장산매점식당, 장음교양봉까지 총 6개소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자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며 나눔 실천에 나섰다.



전북 착한가게 3000호가 탄생한 진안군 정천면 6개소 단체 가입식

“우리 지역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기쁩니다. 착한가게가 됐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 착한가게 단체 가입으로 3000호 달성한 장음교양봉 배순기 대표

착한가게 바람을 타고 착한거리까지

전북 착한가게를 각 지역별로 보자면 익산시(956개소), 전주시(753개소), 군산시(526개소) 순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진안군, 장수군에서 ‘우리 동네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우리가 책임지자’는 복지 허브화 협약으로 착한가게 신규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협약 덕분에 이번 3000호도 빠른 시간 내 탄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착한가게 가입이 꾸준히 이어진다는 후문. 전북 내에서는 이 기세를 이어 착한거리로 이루어진 착한거리까지 생길 바라는 목소리가 높다. 전북의 뜨거운 나눔 열기로 보아 착한거리 탄생은 시간문제가 아닐까 싶다. 부디 착한가게 가입 바람이 꾸준히 이어져 또 새로운 기록을 달성하길 기대해본다. 🍀



복지 허브화 협약식 모습



2019년 전북 착한가게 2000호로 가입한 부안석재

선한 영향력 이어가는 (주)한빛산업개발

“사랑의 벽지로 시작한 나눔은 계속됩니다!”

‘사랑의 벽지’로 잘 알려진 (주)한빛산업개발의 선행이 이어지고 있다. 잘 알려진 벽지 기부 외에도 어르신 이동 편의 서비스와 벽지 지원 등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글이선희 사진전남사랑의열매



(주)한빛산업개발은 얼마 전 6월에도 지난해 가장 큰 수해를 입은 곳 중 하나인 구례군에 벽지를 지원하며 온정을 이어갔다.



1



2

기업 전문분야 살린 물품 기부

• (주)한빛산업개발(대표이사 이상호)의 사회 공헌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한빛산업개발의 대표적 나눔은 ‘사랑의 벽지’다. 지난해 여름, 기록적 폭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 저소득 가구 및 수재민을 위해 벽지 520롤을 기부하며 수해 복구에 힘을 보탤다. 한빛산업개발의 벽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지원했다. 당시 한빛산업개발 이상호 대표는 “회사가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의논하다 물품을 기부하게 됐다”고 말하며,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호우 피해를 입으신 분들과 지역 소외 계층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주)한빛산업개발은 실내 건축을 중심으로 의장 공사, 바닥재, 벽지 공사 등을 기반으로 하는 중견 기업이다. 기업의 전문 분야를 살려 벽지를 준비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 설 명절을 맞아 장성군 저소득 세대를 위해 백미를 지원하기도 했다.
2 화순군 노인복지센터에 승합 차량을 전달하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이어갔다.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분야 넓혀

• 벽지 기부는 최근까지 계속됐다. 지난 6월 4일, 지난해 가장 큰 수해를 입은 지역 중 한 곳인 구례군에 1,000만 원 상당의 고급 벽지 500롤을 기부했다. 하지만 (주)한빛산업개발의 나눔은 벽지 기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어르신의 이동 편의 서비스 증진에 기여하고자 화순군 노인복지센터에 3,000만 원 상당의 승합 차량을 기탁한 것. 또 올해 2월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저소득 세대를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백미를 기부하기도 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는 한빛산업개발 이상호 대표이사는 “항상 기업과 임직원 모두 사회 공헌 활동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나눔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남 사랑의열매 노동일 회장은 “기업의 선한 영향력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에 더욱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꿈·희망 프로젝트 희망Dream 지원사업

“소원을 말해봐~ 제주농협이 다 이루어드립니다”

영화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당신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하면 어떨까? 현실성이 없는 말처럼 들리겠지만, 제주도민에게 지니 대신 제주농협이 있다는 사실.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꿈·희망 프로젝트 희망Dream 지원사업(이하 희망Dream)을 통해서 말이다. 글 이선희 사진 제주사랑의열매



지난 6월 22일에 진행된 제주농협과 함께하는 꿈·희망 프로젝트 희망 Dream 지원사업 1차 후원금 전달식 모습

매년 2,500여 명의 임직원이 나눔에 동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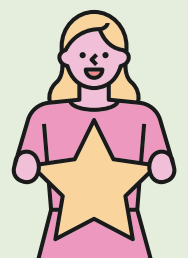
• 제주농협(제주 지역 내 농협중앙회, 농협은행, 지역농협 등)은 임직원이 자율적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 제주 사랑의열매와 협약을 체결하고, '제주농협농축산인 행복나눔 운동본부'를 출범했다. 매년 제주농협 계통 임직원 2,500여 명이 모은 3억 원의 성금은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하고 있으며, 이는 제주농협의 희망Dream 후원금과 지역의 다양한 복지사업을 통해 지원한다. 또 2011년부터는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40여 개의 하나마트 매출 이익의 일정 부분을 공익 기금으로 기탁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지역사회와 상생하고자 한다. 이 밖에도 2014년부터 도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학업 환경 개선 활동을 위해 '사랑의 청

소년 공부방 만들기, 무연고 어르신 200명에게 카네이션 꽃바구니 전달, 도내 저소득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에 보행 보조기 전달 등 다양한 영역의 나눔 활동을 통해 촘촘한 지원망을 유지하고 있다.

꿈꾸는 당신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 지난 6월 22일 제주농협 및 제주 사랑의열매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농협 희망Dream 1차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5월 3일부터 21일까지 접수된 총 191건의 사연 중 29건을 선정해 5,081만 1,000원을 전달했다. 제주농협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마음의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사는 저소득 세대의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Dream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서에 꿈을 이루기 위한 지원을 제출하면 제주 사랑의열매와 제주농협의 공정한 심사

를 거쳐 가구당 500만 원 한도의 현금을 지원한다. 벌써 9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345건 총 8억 6,063만 1,420원을 지원해 이웃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올해에는 원활한 이동을 위한 이동보조기기, 장애인 육상선수 물품, 동화작가 꿈달성을 위한 동화책 제작비 등 이웃들의 다양한 꿈이 지원됐다. 앞으로도 제주농협과 제주 사랑의열매는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마음껏 꿈꾸며 삶의 의욕과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희망Dream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



따뜻한 '우리 동네'를 꿈꾸며

이웃과 함께 더 나은 일상을 만듭니다

한때 서로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정겨운 '우리 동네' 문화가 있었다. 현대에 접어들면서 담장은 높아졌고, 사람들은 홀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역사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무너진 일상을 되찾고자 사랑의열매는 나눔 협력 기관과 함께 '동네'를 만드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글 이선희 사진각 나눔 기관 일러스트 조성흠



지역사회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기 위한
호텔 케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굿바이 코로나19

도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올해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MINI INTERVIEW

도촌종합사회복지관 조현석 사회복지사

- **현재 '굿바이 코로나19'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요?** 콘택트 프로그램의 경우 3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준수해 생애 주기별 치료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 그리고 월 1회 지역사회로 찾아가는 상담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택트 프로그램은 기관 유튜브 '도비랑TV'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대일 실시간 상담과 복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딥택트는 '마음전구'와 '마음우편함'을 통해 현재까지 고민과 사연이 적힌 편지가 약 500통 들어왔으며, 주 2회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마음을 담아 편지에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 **참여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무엇인가요?** 딥택트 프로그램 중 마음전구와 마음우편함이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고민에 대한 답장을 받은 한 주민은 "꼭꼭 눌러쓴 편지에 답장이 오니 아이들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자리할 것 같네요"라며 감사함을 표현했구요. 몇몇 분은 밤에 비치는 전구가 예뻐 잠시 쉬고 가는 공간이 되어 좋다고 익명으로 편지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심리·정서 지원은 물론, 복지 프로그램과 감염 예방까지 모두 다루는 호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프로그램은 크게 대면(콘택트), 비대면(언택트), 그리고 대면과 비대면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한 딥택트(Deeptact) 방식을 적용해 운영 중이다. 특히 딥택트는 정서적으로 교감할 수 있는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지속적인 감정 공유를 통해 공동체 회복을 돕는다.

-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사업의 목적처럼 코로나19로 갑자기 바뀐 일상에 지친 주민분에게 영양제 같은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 블루가 모두 사라질 때까지 주민 곁에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1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소
2 손 편지를 써서 고민을 털어놓는 마음우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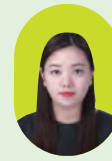


강원살이 회원들이 참여한 네트워킹데이

강원도 정착 청년이 유도하는 청년 지역 정착 유도 프로젝트

강원살이

강원도 청년들이 타 도시로 떠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강원도는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삼성전자가 후원하고 사랑의열매가 지원하는 나눔과꿈 사업에 선정돼 지난해부터 사단법인 강원살이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관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실제 강원도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본인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정서적·사회적 연결망을 구축하는 등 지역사회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춘천·원주·강릉을 지역 거점으로 활용하고, 인근 지역부터 접근함으로써 3개년에 걸쳐 18개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INI INTERVIEW

사단법인 강원살이 김혜원 매니저

- 올해로 나눔과꿈 2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강원살이' 사업은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었나요? '나'에 대해 사유하고 가치를 찾아보는 프로그램인 '나다움 워크숍'을 시작으로 청년들의 취향을 기반으로 커뮤니티를 만들어보는 '오.프.너'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실제 지역에서 겪는 문제를 그들만의 실험을 통해 해결해보는 '리빙랩'과 다양한 주제로 강원도에 사는 청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다움 대화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1년 차 사업인 작년과 비교해 올해는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나요? 1년 차 사업에선 저희의 사업을 통해 관계를 만들고 좋아하는 것을 알아보는 과정을 가졌다면, 2년 차 사업에선 관계를 매개로 내가 좋아하는 것(일)을 일상에서 경험·실험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경험하는 수혜자의 개념을 넘어 내가 직접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보고, 불편한 점을 해결해보는 당사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사업명에 있는 '강원도 정착 청년이 유도하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강원살이에서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 대부분이 강원도에 먼저 이주해 정착한 청년들이 "여기 살기 괜찮은 동네 같아! 너희들 이런 거 해보면서 여기서 사는 거 어때?"라고 말해주는 게 공감대를 쌓고 신뢰감을 줄 수 있



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인 청년들과 함께 살아볼 만한 지역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 강원살이 사업을 통해 이루고 싶은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저희와 같은 청년이 많아지길 꿈꾸고 있습니다. 필요성을 느껴 많은 청년이 모이고 그런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정주 요건들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지역을 변화시켜보는 것, 그런 변화를 저희가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



1 나를 발견하는 나다움 워크숍
2 온라인으로 진행한 네트워킹데이



영생당 한약방 임숙현 대표는 수많은 선행으로 익산시에서 발간한 <익산만의 숨은 보석 98선>의 첫 페이지에 소개될 만큼 지역에서 깊이 존경받고 있다.

전북 최초 부자(父子)·가족 아너 소사이어티, 익산 영생당 한약방 임숙현 대표

“앞으로 잘해야지요, 지금까지는 시원찮았으께!”

처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을 때, 아들과 함께 아너 회원이 되고 싶노라 소감을 말했다. 그로부터 불과 5년 만에 아들은 물론 아내까지 가입해 전북 최초로 아너 소사이어티 가족이 되었다. 그럼에도 임숙현 대표는 더 많이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다. 정말 미안하다고. 글강은진 사진감기념

고장의 큰 자랑이어라

임숙현 대표를 만나기 위해 전북 익산시 함열읍에 위치한 영생당 한약방을 찾았다. 그런데 거의 도착해 내비게이션이 말뚝을 부리는 탓에 길을 조금 헤맸다. 약속 시간도 있으니 차를 잠시 멈추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영생당 한약방이 어딘지 물었다. 그랬더니 웬걸! 삼삼오오 행인 모두가 영생당 한약방의 위치를 알려준다. 한 분은 아예 따라오라며 앞장까지 선다. 함열읍에서 영생당 한약방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면서, 정말 훌륭하신 분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벌써 임숙현 대표를 만난 듯한 기분이다.

“아니, 이게 모르게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자꾸 알려져서 이거시 문제란 말여. 참, 자랑하는 것 같고 민망해서 원... 처음엔 절대 모

르게 했거든요. 쌀 1,000가마를 보내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아너 그거 들면서, 그게 알려져서 이제 감출수가 없게 됐어요. 참!” 임숙현 대표를 직접 만나자 문득 그가 익산시에서 발간한 <익산만의 숨은 보석 98선>의 첫 페이지를 연 인물이란 사실이 생각났다. 그런데 굳이 책을 찾아보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임숙현 대표를 마주하니 한약방의 위치를 알려주던 사람들까지 떠오르며 그가 얼마나 고장의 큰 자랑인지 짐작하고도 남았기 때문이다.

마음에 품고 있던 아너 소사이어티

무엇보다 임숙현 대표가 어떻게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궁금했다. 남몰래 이어오던 임 대표의 나눔을 세상에 알리는 일등 공신 역할을 했으니 말이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봤어요. 그리고 보자마자 언젠가는 꼭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2017년에야 비로소 가입을 한 거예요. 사랑의 열매도 그때 처음 알았고요. 아너 가입하려고 전화를 하면서요.”

임숙현 대표는 2017년에 전북 사랑의열매 37호 아너로 가입했다. 그리고 가입식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아들과 함께 아너 회원이 되

고 싶다”고 말했다. 그 후 2018년에 임 대표의 아내 강경순 씨의 아너 가입으로 전북에서 네 번째 부부 아너가 되었고, 2019년에는 장남 엔젤요양병원 임해곤 이사장이 가입하면서 전북 최초 부자(父子) 아너와 가족 아너라는 기록을 동시에 남기게 되었다.

“아들 사업이 커요. 병원에 환자가 700명이나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돈을 안 쓰고 아끼려 하면 되겠어요? 그게 문제지. 그래서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라는 얘길 제가 많이 해요. 아너 가입 때도 권유하니 두말 않고 ‘네’ 하더라고요. 지금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많이 할 거예요.”

임숙현 대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모습을 먼저 보이고, 또 실천하게끔 권유하는 것이 진짜 자식을 가르치는 거라 말했다.

어쨌든 힘껏 할 거예요. 어디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계속 수소문해야지. 내가 벌 수 있을 때까지 도울 거예요. 어려운 이웃을 돕는 건 당연한 일이나가요. 더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할 뿐이지...

”

”

누가 쌀 한 말이라도 도와줬으면

임숙현 대표는 평소 나눔 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다. 저소득 세대와 다문화 가정 등을 위해 생계비·의료비·장학금 등을 지원하고, 명절이면 쌀 1,000가마를 구입해 전달해왔다. 또 연말이면 김장 김치를 직접 담가 지역 홀몸 어르신과 저소득층, 경로당 등에 보내면서 연탄까지 세심하게 챙겼다. 이런 그의 선행은 임 대표가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한 그해, 2017년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의 국민포상 수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결혼하고 처음 살림을 차렸을 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참 고생 많이 했죠. 누가 쌀 한 말이라도 도와줬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심



정이었으니까. 그 마음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알기에 자꾸 어디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찾게 돼요.”

익산의 운조루, 영생당 한약방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 하는 지역의 딱한 사정들도 모두 임숙현 대표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다. 임 대표는 언제나 흔쾌히 치료비를 보탰다. 그러나 건강을 회복한 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이들의 청은 칼같이 잘랐다. 이제껏 단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건강해졌으니 그걸로 된 거지, 앞으로 잘 살아가길 바란다... 그 말 한마디면 끝! 그게 보람이에요. 내 보람. 돈 버는 데 재미를 붙인 게 아니라(웃음), 그렇게 이웃들 도와주는 데 재

미를 붙인 거예요. 내가 몇백억씩 기부한 것도 아니고, 괜히 자랑하는 것 같고 민망해, 앞으로 잘해야지, 지금까지 시원찮았으니까!”

임 대표는 얼마 전 한일은행에서 영업 중인 13명의 택시 기사 전원을 점심 식사에 초대했다. 금일봉까지 준비해서 말이다. 코로나19로 지역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임숙현 대표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문득 구레 고택 운조루에 타인능해(他人能解)라고 적힌 쌀뭉치가 생각났다. 타인도 열게 해 주위에 굶주린 이가 없게 하라는 뜻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남도의 이타적 정신을 상징한다. 임숙현 대표의 영생당 한약방 문이야말로 현대판 운조루의 뒤희가 아닐까. 누구나 열 수 있는 문이니까. 🍀

전북 최초 부자(父子) 아너와 가족 아너라는 기록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임숙현 대표와 가족들의 사진. 임 대표의 장남 엔젤요양병원 임해곤 이사장 역시 아버지 뒤를 이어 많은 사회 공헌 활동을 하고 있다.

비영리 스타트업 2021 성과 공유회

복잡한 사회문제, MZ세대의 방식으로 유쾌하게 풀어요

다변화된 사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쉽지 않다. 기존 해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관점으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필요한 때다.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글 강보라 사진 다음세대재단, 사랑의열매



2021 성과 공유회 발표를 위해 모인 6개 팀의 구성원들. 이들은 아이디어를 실행한 6개월의 시간 덕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었다고 말한다.

비영리 스타트업의 안전한 시작

사람들의 관심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공익 활동에도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문제는 초기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는 것.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만의 아이디어가 있지만, 시행하기 어렵다면 비영리 스타트업의 문을 두드려보는 것이 좋다.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사업은 '비영리 스타트업 올인원 패키지'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혜택을 갖추고 있다.

"초기에 건강한 조직 모습을 갖추는 것부터 프로젝트를 실행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밀착 일대일 코칭과 멘토링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저희 사업의 가장 큰 차별성입니다."

- 사랑의열매 고성은 대리
체계적 시스템으로 다양한 공익 활동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초기 활동을 지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랑의열매는 비영리 스타트업 생태계가 풍성해질수록 사회 문제도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다양한 상상력과 마주한 2021 성과 공유회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정답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쩌면 수많은 답을 상상해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뒷받침인지 모른다. 그 때문에 6개월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 성과 공유회는 언제나 설레게 한다. 특히 올해는 79개 팀 중 아이디어가 빛난 6개 팀이 선정돼 많은 기대를 모았다. 선정된 팀 리스트를 살펴보기만 해도 시대의 고민과 MZ세대 특유의 발랄한 해법을 짐작



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자 '코뿔소랩'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운동 놀이 콘텐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번 인큐베이팅 기간에는 아동을 위한 게임형 움직임 콘텐츠 '뭉겜'을 개발하고, 열 곳의 가정과 함께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을 보냈다. '니트 생활자'는 무업 기간 사회적 단절을 경험하는 청년들이 연대하는 플랫폼이다. 번아웃이나 인간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백수가 된 청년들이 가상 회사에서 내면의 힘을 기르는 연습을 한다. 홍보팀장의 직함을 달고 사무실에 나와 이력서를 쓰기도 하는 등 하루 한 가지 업무를 정해 매일 수행 여부를 인증한다. 사회적 단절을 벗어나 무기력한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주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큰 숙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모언' 안주원 대표는 비영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을 '안전한 실험실'에 비유했다. "튼튼한 지원 덕에 상상만 하던 것을 실제로 펼쳐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

비영리 스타트업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무 공간과 인건비, 활동 자금 등을 지원해 초기 사업의 신속한 진행이 가능하다.

세상을 바꾸는 비영리 스타트업의 한마디



<니트 생활자>

니트컴퍼니라는 가상의 회사를 운영한다. 백수들이 모여 소속감을 형성하고, 작은 성취 경험을 만들어가는 것이 니트 생활자의 주된 업무다.

“가짜 회사에 출근한 무업의 청년들은 매일 서로의 안부를 묻고, 하고 싶은 일을 직무로 해보는 과정을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소속이 없어도 괜찮다’고 위로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감각과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 공짜 대표

<모엔>

모엔은 ‘모두의 NGO’라는 의미로 비영리단체의 가치를 MZ세대 관점으로 재해석해 소개한다. 다양한 비영리단체를 발굴하며 우리 사회와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한다.

“모엔은 이번 활동에 참여하면서 사업의 미션과 방향성을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NGO를 소개하는 연결 다리가 되어 시민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 안주원 대표



<에이라운드>

에이라운드는 대화에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한 대화의 장을 만든다. 이들은 일상의 편견을 뛰어넘은 대화로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에이라운드는 33~44세 청년들의 이야기 학교를 만드는 미션을 수행하고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팀을 꾸리게 되어서 힘을 맞추고 일을 진행하는 예행연습을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파블리 대표

<코뿔소랩>

코뿔소랩은 2020년 코로나19가 가져온 위기 속에서 탄생한 팀이다. IT 기술의 발달과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속에서 즐겁고 지속 가능한 움직임을 개발한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운동 놀이 콘텐츠 ‘뭉뼌’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운동 놀이 콘텐츠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며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 버드 대표



<BIG한변화>

BIG한변화는 3대 감염 질병 중 하나인 결핵의 자가 진단 키트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들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질병의 간편한 진단법을 공유하고, 개발까지 이끌어내 고자 한다.

“자가 진단 키트 개발은 오랜 시간과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인큐베이팅 과정에서는 저희가 상상하는 키트 사업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타깃 시장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작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채한송 대표



<마인드풀가드너스>

마인드풀가드너스는 정원 가꾸기를 매개로 사람들을 연결한다. 이들은 정원 활동이 전 지구적 생태 위기와 공동체 회복에 개입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저희는 이번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컷플라워 가든’을 실현했어요. 컷플라워 가든은 꽃다발이나 화병용 꽃을 위한 화단을 가꾸고, 꽃을 수확한 뒤 이것을 이웃과 나누는 활동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해 도시에서 사람과 공간의 사회적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 김현아 대표



짙어지는 초록, 향기로운 풍경 경주

녹음방초(綠陰芳草), 초록 나무의
그늘이 짙어지고, 풀에서는 향기가
난다는 뜻으로 여름의 자연경관을
가리킨다. 경주의 여름이 딱 그렇다.
신라 천년의 고대 유적지 사이로
짙은 녹음과 여름 꽃이 한창이다.
그래서일까. 경주의 여름 바람은
조금 더 싱그럽다.

글강은진 사진경주문화관광

“경주 남산을 경험하지 않고는
경주를 제대로 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다.
산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고,
등산로만 수십 코스에 달한다.
사진은 남산 전경





개항 100년의 역사를 지닌 감포항은 언제나 활기가 넘친다.



1

신라인이 신성하게 여긴 산, 남산

바위마다, 골짜기마다 그들의 깊은 불심을 토해내듯 새기고 깎아 세웠다. 신라 왕궁인 월성 남쪽에 남북으로 약 8km, 동서 약 4km로 길게 뻗은 경주 남산의 이야기이다. 금오봉과 고위봉 두 봉우리를 중심으로 퍼져 있는 수십여 개의 골짜기와 능선 구석구석에 신라와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천년의 불교미술이 망라되어 있다. 서남산이라고 부르는 남산 서쪽은 거친 바위가 많아 경사가 가파르지만, 탁 트인 위치에 마애불·탑·절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동남산이라 부르는 남산 동쪽은 소나무가 우거진 깊은 골짜기 곳곳에 절터와 탑, 불상이 숨어 있다. 내로라하는 불교 유적·유물 외에도 남산이 갖고 있는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도 빼어나다. 등반 코스마다 개성이 넘쳐 매번 새롭다.

개항 100년의 경주 최대 항구, 감포

지난해 개항 100주년을 맞은 감포항은 경주 최대의 항구다. 고깃배들이 실 새 없이 드나들고, 활어 위판장에서는 매일매일 신선한 생선이 경매로 오간다. 감포에 가면 절로 활력이 충전되는 느낌이다. 유서 깊은 항구답게 볼거리도 많고, 항구 주변에는 감포의 명물 참가자



2



3



4

미회를 파는 횃집이 즐비하다. 감은사지 3층석탑을 음각화한 술대말 등대에서 바라보는 바다 색깔이 유난히 예쁘다. 이 밖에도 경주에는 문무대왕릉이나 양남 주상절리 등 여름에 가면 더 좋은 바다도 많다.

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 동궁과 월지

신라 태자가 기거하던 별궁인 동궁, 바다와 같은 연못 월지. 조선 시대에는 안압지라 불렸다. 특히 월지는 동서 길이 200m, 남북 길이 180m로, 남서쪽 둘레는 직선인 데 반해 북동쪽은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이뤄져 어느 곳에서도 연못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진짜 바다와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라 조경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경주 최고의 야경 명소로도 손꼽힌다. 근처에는 1만 4,000평이 넘는 연꽃단지가 있다. 7월이면 연꽃이 만개하니 같이 둘러보면 좋을 듯하다. 🌸

1 경주 남산 능비봉 정상부의 5층석탑 전경 2 감은사지 3층석탑을 음각화한 감포의 술대말등대 3 동궁과 월지 야경 4 동궁과 월지 옆에 자리한 7월이면 연꽃이 만개하는 대규모 연꽃단지

1 경주 남산 능비봉 정상부의 5층석탑 전경 2 감은사지 3층석탑을 음각화한 감포의 술대말등대 3 동궁과 월지 야경 4 동궁과 월지 옆에 자리한 7월이면 연꽃이 만개하는 대규모 연꽃단지

경주의 착한맛집을 소개합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관광도시여서일까, 경주에는 착한맛집이 유달리 많다. 대대로 내려오는 백년가계부터 입소문 타고 꼭 가보고 싶은 식당까지! 맛도, 인심도, 나눔의 마음도 대표할 만한 착한맛집을 만나보자.



영양숯불갈비



경주를 대표하는 50년 전통의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백년가계다. 현재 2대 사장이 운영하고 있다. 오직 한우 갈빗살만 전문으로 하는데, 창업주로부터 내려오는 양념이 핵심이다. 갈비의 신세계를 맛보았다는 극찬 리뷰가 줄을 잇는다.
 📍 경북 경주시 봉황로 79
 ☎ 054-771-2626

백미향



현지인 맛집. 탕수육 맛집으로 유명하다. 특히 쫄쫄득득한 식감이 일품인 인절미탕수육이 인기 높다. 간풍기를 으뚱으로 끄는 손님도 많다. 재료를 잘게 다지는 유니짜장 스타일의 짜장면과 해물이 가득한 짬뽕에서 백미향의 탄탄한 기본기를 엿볼 수 있다.
 📍 경북 경주시 동성로 107-5
 ☎ 0504-2015-1696

토함한우



좋은 고기를 쓴다는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다. 등급 따라 고기를 골라 주문할 수 있는 것도 매력이다. 최고급부터 가성비 좋은 고기까지 원하는 대로 즐길 수 있다. 식사로 나오는 잔치국수도 인기가 높다. 무엇보다 친절하고 서비스도 손님들 칭찬이 자자하다.
 📍 경북 경주시 토용길 24번길 27-1
 ☎ 054-776-4008

당신의 눈썰미는 몇 점?

다른 그림 찾기에 도전하세요

반가워요~

새로운 열매특독 서포터즈들

지난 6월 1일 사랑의열매 열매특독 온라인 서포터즈 6기로 활동할 20명의 합격자를 발표했다.

앞으로 서포터즈들은 나눔과 기부 문화를 알리는 일에 함께 한다. 사랑의열매 캠페인 홍보는 물론 온라인 콘텐츠 기획에도 참여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참신한 나눔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열매특독 서포터즈들의 재기 발랄한 활약을 기대해도 좋다. 🍓



다른 곳은 총 다섯 곳

모두 찾은 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다섯 곳을 모두 표시한 후 사진을 찍어 사랑의열매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름과 연락처도 꼭 적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드립니다.

마감 일자 매월 20일
사랑의열매 이메일
cckpr@chest.or.kr

만화로 보는 나눔 이야기



글·그림 오동진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하는 민간 복지 영역의 확대

“지역 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한 새 장을 열다”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 특별한 자리가 마련됐다. 공동 모금과 배분, 지역사회복지, 기업 사회 공헌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민간 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

글 이선희 사진 사랑의열매



사랑의열매를 방문한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노진영 회장(왼쪽)과 CJ 나눔재단 곽대석 사무국장

지난 6월 16일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 노진영 회장이 김상균 사무총장과와의 특별한 만남을 위해 서울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을 방문했다. 두 사람의 인연은 전남에서부터 시작됐다. 노진영 회장이 작년까지 전남복지재단 이사장을, 김상균 사무총장은 전남 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당시 지역의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뜻을 함께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두 사람의 만남에 곽대석 CJ 나눔재단 사무국장도 함께하며 폭넓은 대화를 이어갔다. 김상균 사무총장, 노진영 회장, 곽대석 사무국장은 각각 공동 모금과 배분, 지역사회복지, 기업 사회 공헌 분야의 전문가로, 민간 복지 영역의 네트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사랑의열매 같은 중간 지원 기관의 중요성과 현장에 미치는 영

향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세 사람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사회복지 기관 간의 정보 공유와 소통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하며, 향후 전남 지역의 원활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광화문 사랑의열매 회관에 처음 방문한 노진영 회장은 “사회복지 현장의 든든한 파트너인 사랑의열매 사무총장에 김상균 사무총장이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향후에도 더욱 협력적인 논의를 통해 지역 복지 발전에 함께 기여해나가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노진영 회장과 김상균 사무총장, 곽대석 사무국장은 앞으로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지역 복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

중앙회



배달 라이더 의료비 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체결

지난 6월 3일 외식업 배달 라이더의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을 위해 사랑의열매와 (주)우아한형제들(의장 김봉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이사장 이선우, 이하 신나는조합)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음식 배달 중 사고를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라이더를 지원하고자 (주)우아한형제들 김봉진 의장이 2019년 사재 20억 원을 기부해 조성한 기부자맞춤기금 3호인 '우아한 라이더 살핌기금'의 활성화를 위해 진행했다. (주)우아한형제들은 기금 지원과 홍보를, 사랑의열매는 기금 관리와 배분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요양을 신청한 라이더에게 지원을 안내하는 한편 대상자를 추천하고, 신나는조합은 기준 중위 소득 140% 이하 가구 내 지원대상을 선정해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의료비와 생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본에스티스, 3억 5,000만 원 상당 화장품 기부

기능성 코즈메틱 전문 기업 (주)본에스티스(대표 한도숙)가 3억 5,000여만 원 상당의 크림과 세럼으로 구성된 자사 제품 '트라이샷' 1,000세트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 회관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주)본에스티스 한도숙 대표와 이종원 이사가 참석했으며, 사랑의열매 김경희 사회공헌본부장과 직원들이 함께했다. (주)본에스티스는 30여 년의 연구 개발 노하우와 '초저분자 펩타이드' 등 자체 보유 특허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인에게 적합한 화장품을 만들 뿐 아니라, 일본·영국 등 해외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코즈메틱 분야 선도 기업이다. 이번에 (주)본에스티스에서 기부한 트라이샷 1,000세트는 한국미혼모가족협회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를 통해 미혼모와 장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홍보대사로 나눔 홍보 이어가는 배우 김나운

방송뿐만 아니라 음식 사업가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배우 김나운이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위촉패를 전달받은 김나운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분이 많은데, 기부에 동참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나가자”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서울 사랑의열매 홍보대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을 전했다. 평소 나눔에 적극 동참해온 그는 지난해 11월 서울 사랑의열매 아너 302호 회원이자 W아너 500호로 가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창립 4주년 사회 공헌 기금 쾌척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가 서울 사랑의열매에 임직원의 자발적 참여로 마련한 사회 공헌 기금 6억 8,000여만 원을 기부했다. 작년 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운수 수입이 크게 감소하고, 방역 비용은 늘어나는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가 함께 이웃을 도우며 난관을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기부를 결정했다. 김상범 사장은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나눔에 동참하겠다”고 전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사회복지기관에 차량 전달

지난 6월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권형택, 이하 HUG)의 사회복지 기관 차량 지원 사업 전달식을 진행했다. 해당 사업은 이동하기 불편한 장애인,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HUG가 지난 2019년 시작한 사회 공헌 사업이다. 지난해 기탁한 5억 원으로 구입한 미니버스 및 승합차 등 대형 차량 13대는 부산 소재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HUG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부금 5억 원을 부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우리 부산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

부산 사랑의열매가 6월 15일부터 코로나19 이후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부산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7월 31일 까지 진행되는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재난 취약 계층과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의 1호 기부자로 참여했으며, 캠페인 기부금은 기존 저소득 가구뿐 아니라 경제 불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 위기 가정에 지원한다.



(주)리만코리아, 화장품 기부로 통 큰 이웃사랑 실천

(주)리만코리아(대표이사 김경중)가 제8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맞아 자사 브랜드 인셀덤 화장품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총 3억 원 상당의 화장품은 대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협회를 통해 대구 지역 다문화 가정 등의 여성들에게 지원했다. 김경중 대표이사는 “1년마다 최소 1억 원 이상을 기부해 여성 1,000명이 아름다운 빛을 밝히는 ‘1.11 커밋먼트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성환 대구시의원, 결산검사 수당 전액 기부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환 시의원(교육위·달성군)이 최근 진행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참여해 받은 총 272만 원 상당의 수당 전액을 대구 사랑의열매에 기탁하며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했다. 강성환 시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외된 이웃들이 한층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은 금액이지만 힘든 이웃에게 작으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 성금 기탁

지난 5월 31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위원장 김성태)이 인천 사랑의열매에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를 위한 기부금 3,359만 원을 전달했다. 우리집 공간 채움 프로젝트는 소규모 신규 영구 임대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소형 생활 가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와 함께 한다. 김성태 위원장은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이 큰 주거 약자들이 집에서만큼은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상아프론테크, 푸드뱅크 이용자를 위한 온정 나눔

슈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소재·부품 전문 기업인 상아프론테크(대표이사 이상원)가 기부금 1,500만 원과 마스크 1만 장을 기탁했다. 이는 인천광역시푸드뱅크 배달 서비스인 빙동푸드마켓 등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했다. 이상원 대표이사는 “푸드뱅크를 이용하시는 분께 생필품뿐만 아니라 저희의 사랑과 응원도 함께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은행노동조합,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한 선풍기 지원

광주은행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욱)이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성금 600만 원을 광주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폭염을 대비해 시원한 여름 나기를 위한 선풍기 125대를 구입하는 데 사용했으며, 서구 관내 18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드림스타트사업팀 추천 아동에게 전달했다. 이성욱 위원장은 “곧 무더위를 맞이할 이웃들에게 선풍기가 전달돼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원 회장, 기부 참여로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시작 알리

광주 사랑의열매 한상원 회장이 6월 15일 시작한 '대한민국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4,000만 원을 기탁하며 캠페인 시작을 알렸다. 캠페인은 7월 31일까지 47일간 사랑의열매 전국 17개 시도 지회에서 일제히 전개한다. 한상원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광주가 힘을 합칠 때”라며 “소중한 성금으로 사회백신 같은 복지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주)바이오니아, 우리 대전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참여

코스닥 상장 기업 바이오니아(대표이사 박한오)가 보호종료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한 성금 1억 원을 대전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국내 1호 바이오 벤처인 바이오니아는 유전자 기반의 분자 진단과 신약 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질병을 예방·진단·치료하는 헬스케어 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박한오 대표는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이들이 희망을 갖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싶었다”고 나눔 참여 소감을 전했다.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 사업에 8,600여만 원 배분금 전달

대전 사랑의열매가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 사업에 선정된 22개소에 배분금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장비 보강 및 시설 개·보수를 지원한다. 선정 기관 대표로 전달식에 참여한 열매주간보호센터의 유근선 센터장은 “직업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장애인이 만든 커피와 간식거리를 구청 직원, 주변 이웃들과 나누고 있다”며 “이번 지원금은 문화 나눔 행사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KCC, 어린이 통학 버스 차량 지원

친환경 페인트 제조업체 (주)KCC가 어린이 통학 버스 안전 강화 지원 사업을 위해 기탁한 성금 1억 3,500만 원을 울산 지역 33개소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울산 사랑의열매가 지역사회복지 직능단체 간담회를 통해 제도 변경에 따른 차량 개조 비용 마련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울산에 위치한 KCC를 산공장에 사업을 제안해 성사됐다. (주)KCC는 저소득 장애인 가정 주거 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등 활발한 나눔을 펼치고 있다.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이 '우리 울산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1호 기부자가 됐다. 송철호 시장은 작년 코로나19 특별 모금 기간에도 고통 받고 있는 울산 시민에게 도움이 되고자 4개월간 급여의 30%를 성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송 시장은 “백신 보급으로 사회가 점차 정상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새로운 빈곤층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회 곳곳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울산 시민이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캠페인 참여를 독려했다.



(주)모나미, 용인시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문구류 나눔

(주)모나미(대표 송하경)가 성금 600만 원과 1,012만 원 상당의 문구류 12종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기탁했다. 총 1만 6,000여 개에 달하는 문구와 성금은 저소득 가정 및 지역아동센터 등에 지원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주)모나미 송하윤 사장은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과 문구류를 준비했다”며 “이번 기부를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후원 사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상공회의소, 먹거리 문제 해결 위한 성금 기탁

수원상공회의소(회장 홍지호)가 '꼬르륵 소리 없는 경기도 만들기 나눔캠페인'을 위한 성금 200만 원을 경기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성금은 경기먹거리그냥드림코너 등에 지원했다. 앞서 경기 사랑의열매는 지난 5월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함께 지역상공회의소 회원 기업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그 일환으로 수원상공회의소의 나눔이 이루어졌다.



서부희망케어센터, 남양주시 1호 착한일터

남양주시 서부희망케어센터(센터장 신영미)가 남양주시 첫 번째 착한일터가 됐다.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는 2007년 출범한 남양주시만의 특화 사업이다. 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통합 사례 관리, 가족 상담 치료, 푸드마켓 등 다양한 복지사업을 진행하며, 주민이 원하는 곳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영미 센터장은 “복지 현장에서 뛰어나는 직원들이 먼저 나눔 동참을 제안했다”며 지역사회에 귀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칠성음료·홈플러스, '제로 프로모션' 수익금 3% 기탁

지난 6월 2일 롯데칠성음료와 홈플러스 강릉점이 '제로 프로모션' 기탁품을 강원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제로 프로모션은 롯데칠성음료와 홈플러스가 협약한 '착한소비 캠페인'의 일환으로, 전국 홈플러스에서 칠성사이다 제로, 펄스 제로 등 20종의 판매 수익금 3%를 사랑의열매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롯데칠성음료와 홈플러스 강릉점이 전달한 172만 원 상당의 음료는 강원광역푸드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강화 지원 사업 지원금 전달

충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5월 13일 충북 지역 아동·청소년 사업 수행 기관 7개소에 지원금 2억 168만 1,9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통학 버스 적용 교육 시설로 새로 포함된 기관 등을 지원한다. 충북 사랑의열매 박흥철 사무처장은 “이 사업을 통해 도내 많은 아이가 안전하게 이동하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우리 충남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전개

충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5일 충남도청에서 대국민 이웃 돕기 캠페인 ‘우리 충남 사회백신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 취약 계층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과 실직 등 새로운 사회문제를 지원하고자 마련했다. 충남 사랑의열매 성우중 회장은 “많은 도민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의 정으로 캠페인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세븐틴 멤버 호시, 아너 가입으로 선한나눔 동참

K-POP 그룹 세븐틴 멤버 호시가 경기북부 사랑의열매에 1억 원을 기부하며 아너로 가입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후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됐다. 호시는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드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아티스트가 되겠다”고 말했다. 호시가 전달한 기부금은 학대 피해 아동, 한부모 및 조손 가정, 장애인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임영웅 팬클럽, 기부 통해 전파한 선한 영향력

강원 지역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with Hero 강원’이 지난 6월 4일 도내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강원 사랑의열매에 현금 616만 원과 선풍기 45대를 기탁했다. 임영웅 팬클럽 측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눔을 실천하는 임영웅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6월 16일 가수 임영웅의 생일을 맞아 기부했다”며, “올바른 팬덤 문화가 더 많은 나눔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건설본부, 900만 원 기부

지난 5월 7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하 KCL) 건설본부가 사회 공헌 기금 900만 원을 충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기탁금은 충북 지역 장애인 시설 세 곳에 각각 300만 원씩 지원했다. 전달식에서 KCL 건설본부 정상화 본부장은 “성금이 장애인 거주 시설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진정되는 대로 충북 사랑의열매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전개해나갈 것”고 전했다.



82개 기관에 배분금 전달 및 사업 수행 교육 진행

지난 6월 8일 충남 사랑의열매는 2021년 ‘소규모 복지 기관 지원 사업’ 30개소 기관에 1억 4,300만 원과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 52개소 기관에 2억 3,200만 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사업 수행 기관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별 선정 기관 중 대표 기관 1개소와 함께 전달식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나눔리더스클럽 가입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회장 홍요섭)가 전북 사랑의열매 나눔리더스클럽에 가입했다. 전북지방변호사회는 지난 2005년부터 현재까지 8,497만 원을 기부하며 바람직한 기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앞장서왔다. 그뿐 아니라 전북 지역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나눔 활동에도 동참해왔다. 홍요섭 회장은 "이번 나눔리더스클럽 가입을 계기로 우리 전북지방변호사회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전주연탄은행, 지역 소외 계층 위해 업무 협약 체결

지난 6월 14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전북 사랑의열매와 2021 지역 소외 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합 모금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연탄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정기적인 배식 봉사외 연탄 나눔,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봉사 활동을 준비해 도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윤국춘 대표는 "연합 모금을 통해 우리 지역 취약·소외 계층을 위한 복지 활동이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순희 아너 전남 부부 아너 소사이어티 12호 탄생

지난 5월 6일 서순희 씨가 1억 원 기부를 약속하며 전남 111호이자 여수 17호 아너 회원이 됐다. 서순희 아너는 지난 2016년 전남 34호(여수 5호)로 가입한 (주)대신기공 김철희 대표이사의 부인으로, 이번 아너 가입을 통해 부부가 함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게 됐다. 서순희 아너는 "어려운 시기인 만큼 주변 이웃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 나눔을 실천하게 됐다"고 전했다. 성금은 여수시 돌봄 이웃 복지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이다.



전남 도내 사회복지시설·기관 114개소에 사업비 전달

전남 사랑의열매는 '2021년 복권기금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 강화 지원 사업'을 통해 전남 도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114개소에 3억 38만 1,000원을 지원했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안전한 귀가와 이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 구조 및 장치(통학 차량 하차 확인 장치, 후방 카메라, 보조 발판) 등 구조변경에 필요한 사업 예산을 지원한다.



경상북도개발공사, 성금으로 총 10개 시군 300세대 지원

지난 5월 26일 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재혁)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북 지역 저소득 가구 청소년 장학금과 영·유아 보육비 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경북 사랑의열매에 전달했다. 청소년 장학금은 포항시, 경주시, 성주군, 군위군, 청송군 5개 시군의 초·중·고등학교 200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 원씩 총 1억 원을 전달했다. 영·유아 보육비는 영주시, 문경시, 안동시, 김천시, 영천시의 100가구에 각각 50만 원씩 총 5,000만 원을 전했다.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착한일터 가입

경북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0일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본부장 강위중)에서 건강관리협회 경북지부 이강원 사업관리부장, 경북 사랑의열매 정동의 사무처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착한일터 현판을 전달했다. 강위중 본부장은 "평소 경북 도민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과 응원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착한일터 캠페인을 접하게 됐다"며 "이번 나눔이 어려움을 겪는 경북 도민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주)센트랄,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업무협약

지난 6월 10일 경남 사랑의열매는 도내 아이들의 안전한 놀이터를 만들고자 (주)센트랄(회장 강태웅)과 '아동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안전 놀이터 만들기'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센트랄이 지역사회 공헌 차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추진됐으며, 다양한 기관이 협력한다. 경상남도도와 창원시는 놀이터 사업 대상지 추천 및 행정 지원을 맡고, 세이브더칠드런은 안전한 놀이터 만들기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비 전달

경남 사랑의열매는 지난 6월 14일 '2021년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방학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회복지 기관·시설 48개소에 2억 202만 4,600원을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장애 아동을 포함한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예체능 활동,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활동과 신학기 물품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배분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선정 기관 담당자들은 온라인으로 사업 수행 내 교육 받는다.



참 좋은 당신이 있어 세상이 1℃ 따뜻해집니다

제주



도내 최초 치과원장 부자 나눔리더 탄생

지난 6월 17일 고운이치과의원 이성주·이남권 대표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제주 나눔리더 85호, 86호로 가입해 도내 최초 치과원장 부자 나눔리더가 되었다. 이성주·이남권 부자는 2014년부터 꾸준히 폐금니로 마련한 성금을 기부하며 도내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난 6월 11일에는 고운이치과의를원을 찾은 환자 133명이 기부한 폐금니를 팔아 마련한 1,753만 원을 제주 사랑의열매에 기탁한바 있다.



제주시읍·면·동에 희망나눔캠페인 특화사업비 지원

제주 사랑의열매는 제주시와 협약을 통해 진행한 '나눔네트워크' 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 11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희망나눔캠페인 특화사업 지원금 7,584만 6,000원을 전달했다. 이 사업은 읍·면·동 중심의 민간 자원 욕구를 효과적으로 파악해 신속하게 지원하고자 진행하는 지역 네트워크 사업으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주거 환경 개선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배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임현완 대표, 세종 사회백신 캠페인에 5,000만 원 기탁

지난 6월 18일 농업회사법인 영신(주) 임현완 대표가 '우리 세종 사회백신 나눔캠페인'에 법인 명의로 5,000만 원을 기탁해 세종 1호 기부자가 됐다. 임현완 대표는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인으로서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큰 기쁨"이라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임 대표는 지난 2017년 세종 11호 아너에 가입해 개인 명의로 1억 원을 완납한 바 있다.



부강면 착한가게 7개소, 현판 전달식 진행

세종 사랑의열매와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6월 18일 부강면 일원에서 착한가게 단체 가입식을 진행했다. 이날 부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정종길, 공공위원장 인진순) 위원들과 세종 사랑의열매 이경아 사무처장은 △본가 신촌 설령탕 △행복공장 △원국중기 △바구니칼국수·닭갈비 △그린 브라우니 △명가 △고향집 이상 7개소를 방문해 현판을 전달했다.

- | | | | |
|--|---|--|---|
| <p>중앙 342호</p> <p>김성은 골드먼삭스 본부장, 변호사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합니다."</p> | <p>중앙 343호</p> <p>유종연 (주)다솜이 과장
"나눔은 곧 행복이자 성공이다. 나눔이 있어야 인생에서 더 값진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p> | <p>서울 320호</p> <p>김광민 시그니처인베스트먼트 본부장
"나눔이란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p> | <p>서울 321호</p> <p>박순연
"나눔이란 행복이라 생각합니다."</p> |
| <p>서울 322호</p> <p>이일표 (주)아이피씨 회장
"나눔이란 남이 알면 반갑지는 나의 기쁨입니다."</p> | <p>서울 323호</p> <p>신호주
"나눔이란 항상 가지고 있던 큰 기쁨이라 생각합니다."</p> | <p>서울 324호</p> <p>오은영 (주)투치펠로코리아 대표
"나눔은 행복입니다."</p> | <p>서울 325호</p> <p>유민석
"나눔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p> |
| <p>부산 219호</p> <p>이윤태 부산항노조조합 위원장
"나눔과 기부,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듭니다."</p> | <p>부산 220호</p> <p>故 정순표
"항상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돕고 싶어 했던 당신! 오늘에야 염원의 한 조각을 이루었어. 사랑해요!" -이광순</p> | <p>부산 221호</p> <p>임귀례
"항상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과정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 아픔이 서럽지 않았으면 합니다."</p> | <p>부산 222호</p> <p>신진시민
"불만은 쌀기에서 쌀이고 만족은 베풀기에서 깃들입니다."</p> |
| <p>대구 178호</p> <p>최병일 우성환경(주) 대표
"저의 나눔이 절망에 처한 분들에게 희망으로 다가간다면 제게는 더없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p> | <p>대구 179호</p> <p>김동관 글든인베스트먼트 대표</p> | <p>대구 182호</p> <p>조동희 (주)제이원 회장</p> | <p>대구 183호</p> <p>김범수 서문시장상가연합회 회장
"모두가 힘든 시기에 저의 나눔이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소식으로 다가가기 바랍니다."</p> |
| <p>대전 91호</p> <p>정재영 하나의원 원장
"저의 나눔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p> | <p>경기 256호</p> <p>문한경 디지털제조공조(주) 대표이사
"남양주시 저소득층을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어 기부를 결심했습니다."</p> | <p>경기 258호</p> <p>남금순 아너
"나눔이란 세상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니 다 나누어야 하는 것"</p> | <p>경기 259호</p> <p>최상기 화순건설(주) 대표이사
"지역 취약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가족들의 뜻을 모아 기부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p> |
| <p>경기 260호</p> <p>호시 세븐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p> | <p>강원 89호</p> <p>임재홍 한국타이어춘천판매(주) 대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항상 기부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나눔을 알게 되었습니다."</p> | <p>충북 63호</p> <p>이창록 (주)승민디앤씨 회장
"나눔이란 세상에 모든 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라, 위대해지기 위해 시작하는 것입니다."</p> | <p>전북 73호</p> <p>김영탁 (주)도원 대표
"살은 매 순간 피어나는 꽃입니다. 나눔을 통해 희망을 꽃피우고 싶습니다."</p> |
| <p>전남 118호</p> <p>현효숙
"사랑하며 착하게,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겠습니다."</p> | <p>경북 126호</p> <p>황경희 (주)미래인더스 대표이사
"나눔은 삶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p> | <p>제주 116호</p> <p>양영은 (주)제주지오영 대표이사
"나눔이란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나의 조그만 정성입니다."</p> | |

〈사랑의열매〉에 따뜻한 사연을 보내주세요

지난 호 독자 의견



이번 호에서는 Fun한 나눔 '우리 함께 소.다.수.해요' 카툰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처음엔 카툰 제목만 보고 '소다수'라는 단어에 시원한 청량음료를 상상했으나, 소중한 다수의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해 사랑의열매에서 만든 캠페인이라는 설명에 저절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다수나눔 캠페인이 대한민국의 행복한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준길, 경기도 의정부시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나눔과 후원을 아끼지 않고 3,000번째 착한가정의 주인공이 된 문천식 씨의 모습이 존경스럽습니다. '같이의 가치'를 유산으로 남겨주고 싶다는 그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격하게 응원합니다. -박규남, 경남 함양군



SNS 스타를 꿈꾸며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충남 홍성군 시니어들의 이야기가 담긴 '세상을 바꾸는 희망 풍경'을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도전에서 나아가 결코 걸림돌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크리에이터로 멋지게 인생 2막을 열어가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았습니다. -이정숙, 서울시 관악구

이렇게 참여하세요!

〈사랑의열매〉를 보시고 좋았던 기사나 의견을 보내주세요. 나눔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나 감동적 이야기, 〈사랑의열매〉에 전하고 싶은 말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더욱 알차고 따뜻한 〈사랑의열매〉를 만듭니다. 참여하신 분 중 세 분을 추첨해 선물을 드립니다. 보내주실 때에는 이름과 주소, 연락처도 잊지 마세요. 마감 일자 매월 20일 이메일 cckpr@chest.or.kr

독자 선물

독자 의견에 선정된 분에게는 문화상품권(2만 원)과 사랑의열매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블루투스 스피커



파우치(색상 랜덤)



마스크 스트랩(색상 랜덤)

〈사랑의열매〉를 웹진으로도 만나보세요!



〈사랑의열매〉 매거진이 웹진으로도 발행됩니다.

사랑의열매 웹진
nanumnews.or.kr

나눔과꿈

삼성전자와 사랑의열매가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만들기

2022년 사업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1. 7. 1. 09:00 ~ 7. 30. 18:00

사업소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및 아동청소년 교육·자립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이슈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공모사업

사업분류

분류1. 사업구분



꿈

기존에 시도되지 않았던 혁신적인 사업으로 시도가 의미 있는 사업



나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진행방식을 변경하여 효과성을 증진 할 수 있는 사업

분류2. 사업기간



단기(1년)

2022. 1. 1.~2022. 12. 31. 기관당 1억 원 이하



장기(3년)

2022. 1. 1.~2024. 12. 31. 기관당 3억 원 이하
(※ 예산 3,000만 원 이상 사업 신청)

분류3. 사업주제



중점주제

아동청소년 교육·자립 지원사업



자유주제

현장 중심의 자유주제 지원사업

신청자격

복지, 교육자립, 보건의료, 고용, 주거, 문화, 환경, 글로벌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지닌 비영리 단체 및 기관(비영리 사회적경제조직 포함)

온라인 사업설명회

2021년 7월 1일부터 나눔과꿈 홈페이지(www.sharinganddream.org)에 접속하여 영상 시청 가능

진행일정

온라인 설명회

2021. 7. 1. 이후 상시

나눔과꿈 홈페이지에서 시청 가능

접수

2021. 7. 1. 9시~ 7. 30. 18시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한 접수

심사

2021. 8.~10.

관련분야 학계·현장전문가의 서류심사 및 면접·현장심사

선정

2021. 11월 말

선정결과 안내 및 전달식

사업수행

2022. 1.

계약체결 및 배분금 지원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문의

나눔과꿈 홈페이지 통해서 신청 가능 **www.sharinganddream.org**

Tel. 02-6262-3132, 3137, 3138 Web. 나눔과꿈 홈페이지 → 실시간 상담창 이용(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

※ 자세한 내용은 나눔과꿈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